

2016년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학생회지 제3권

# 시너지

시작하는 너와나, 지금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학생회





## I. 여는 마당

- 발간사 ————— 3
- 학장님 말씀 ————— 4
-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연혁 ————— 5
- 교수님 소개 ————— 6

## II. 어울림 마당

- 2016, 올해의 행사 ————— 13
- 동아리 소개 ————— 22

## III. 우리 마당

- 교수님이 졸업생에게 전하는 한마디 ————— 31
- 선배가 후배에게 전하는 한마디 ————— 32
- 병원 인턴십 후기 ————— 37
- 4학년 연구 논문 ————— 39
- 성공 취업 선배 인터뷰 ————— 46
- Global Nursing program 참가 수기 ————— 51
- 깨알 정보 ————— 54

## IV. 닫는 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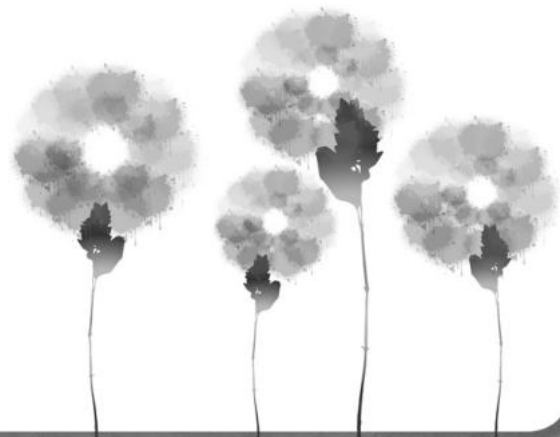
- SNS 와글와글 ————— 61
- 편집후기 ————— 72





## I. 여는 마당

- 발간사
- 학장님 말씀
-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연혁
- 교수님 소개







##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2016 마음드리 참 간호대학 학생회장 황은주입니다.

처음 '시너지'라는 학회지를 발간할 때는 학생회가 주관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어 만들었는데, 본격적으로 학회지를 담당하는 동아리가 신설되어 감회가 새롭고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매년 경상대학교 간호대학의 한 해와 학생들의 추억을 학회지 한 권에 담아낼 수 있다는 점이 시너지만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간호대학 학생들을 대표하여 소중한 간호대학 학회지의 발간사를 쓰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번 시너지 제 3권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경상대학교 간호대학은 국내 최고의 간호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거점국립대학교의 단과대학입니다. 지난 해 12월에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시행한 간호교육 인증평가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5년 인증을 획득하였고, 해마다 간호사 국가고시에 100% 합격률을 보이며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 당당히 취업하는 자랑스러운 단과대학입니다. 이는 유능하신 교수님들의 가르침과 선생님들의 도움 아래에서 학생들의 열정으로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작년에 이어 2016년에도 간호대학과 학생회에서 함께 주관한 여러 행사들이 진행되어 간호대학의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든든한 12학년 선배님들께서 졸업하시고 귀여운 16학년 신입생들이 새롭게 입학했습니다. 신입생들이 끼를 뽐내는 새내기 한마당으로 시작하여 4월 나이팅게일 선서식 때의 떨리고 부푼 마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번 해에는 아쉽게도 굵은 날씨로 인해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이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간호대학 페스티벌과 간스케(간호대학 슈퍼스타 K)로 학생들 모두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한 대학생활의 꽃, 대동제도 무사히 마쳤고, 무엇보다 올해는 간호대학 창립 90주년으로 기념식을 개최하여 간호대학의 위상을 당당히 높였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는데 잘 참여해주시고 격려해주시던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2016년은 간호대학 학생회장으로서 소중하고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회장으로서, 학생간호사로서 보람찬 일도 있었고 힘든 점도 있었지만, 함께 했던 많은 고마운 사람들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겪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생각하며,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학생들 모두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러한 성장을 느끼고 자신의 열정과 함께 원하는 꿈을 향해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너지를 통하여 올해 2월에 졸업하시는 선배님들께서는 2016년의 일들이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길 바라며, 새로 입학하는 17학년 후배님들은 여러 유용한 정보들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 힘써주신 학회지편집 동아리, 교수님, 선배님, 재학생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풍성하고 알차게 가꾸어 소중한 추억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시작하는 너와나, 지금 파이팅!♥

2016년 학생회장 황은주



## 학장님 말씀

간호대학 재학생 여러분,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이 가까워 옴을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3월이 되면 곧 간호대학 캠퍼스가 학생여러분의 활기로 가득할 것입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간호대학 학회지인 시너지 제 3호 발간을 축하하면서 지면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합니다.

2016년 지난해는 우리 대학이 간호교육을 시작한지 9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였습니다. 90년 기념식을 거행하면서 우리 간호대학이 한국의 간호교육 및 연구, 간호사업 발전에 기여하고, 경남간호교육의 산실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업적을 기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은 더욱 발전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는데 학회지를 통해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 발전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우리 간호대학을 사랑하고, 능력 있는 간호인재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대학 학회지는 2014년에 창간되어 매년 1회 발간되고 있습니다. 학회지는 지난 1년 동안 간호대학 학생회 활동을 비롯하여 재학생들이 경험해온 다양한 활동과 연구결과를 전체 학생들과 공유함으로써 학생들이 간호대학 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얻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자극을 받으며 간호대학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학회지가 계속 발간되어 우리 대학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학장으로서 학회지에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학회지가 우리 간호학생들의 문화를 바람직한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문화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자 사회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양식 또는 생활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간호학생의 문화는 우리 대학의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학생들 사이에 공유되고 전달되는 행동양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쉬운 예를 들면 공부문화, 음주 문화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화는 학생여러분이 우리 간호대학의 일원이 되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므로 바람직한 간호학생 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회지가 바람직한 간호학생 문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학생들의 문화에 대해 진단하고 현재 바람직한 문화는 계속 권장하고, 그렇지 못한 문화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보다 바람직한 학생문화가 조성되면 학생들의 우리 간호대학 4년 생활이 더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유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이번에 발간되는 학회지는 2016년도 간호대학 학생회 임원들과 편집부의 수고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간호대학 학회지가 더욱 발전해나가기 바라며, 학회지 발간을 위해 수고한 학생회 임원과 편집부, 학생회 편집부 지도교수이신 전미양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 2. 학장 구 미 옥





## 경상대학교 간호대학이 걸어온 길

1926년 03월	경상남도 도립 진주병원 간호부 및 조산부 양성소 개설
1947년 04월 29일	진주고등간호학교(3년제)로 승격
1971년 12월 31일	진주간호학교로 승인인가(대학과정 3년제)
1972년 12월 14일	진주간호학교 폐교, 경남간호전문학교 인가
1979년 01월 01일	경남간호전문대학 개편 인가
1983년 09월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신설
1984년 03월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1회 입학
1986년 02월	경남간호전문대학 폐교
1987년 02월	의과대학 부속병원 개원
1988년 02월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1회 졸업
1995년 10월 18일	경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개설 인가
1996년 03월	경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1회 입학
1998년 02월	경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1회 졸업
2006년 03월 01일	경상대학교 간호대학으로 승격
2008년 03월 03일	경상대학교 간호학과 입학인원 60명으로 증원
2009년 03월 01일	경상대학교 간호학과 입학정원 70명으로 증원
2014년 09월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복합교육센터 개관
2015년 03월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WISE 실습교육센터 개관
2015년 12월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간호교육인증평가 5년 인증 획득
2016년 02월 25일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개원
2016년 10월 27일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90주년
2017년 02월 24일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72명 졸업. 현재 2941명의 졸업생 배출



## 교수님 소개

### 권인수 교수님



'아동간호학' 및 '아동간호학 실습'을 담당하고 계시며, 강의는 주로 PowerPoint (PPT)로 진행하십니다. 수업은 주로 지침서로 진행하시며 책도 보기 때문에 항상 지침서와 책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 과제는 책을 요약하고, DenverII검사(아동의 나이에 맞는 발달정도를 검사)를 아동에게 직접 해보는 것도 있다. 책을 요약한 부분은 따로 수업을 하시지는 않지만 시험에는 출제되니 요약할 때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 강영실 교수님



'지역사회간호학' 및 '지역사회간호학 실습'을 담당하고 계시며, 수업은 주로 책을 요약한 PowerPoint(PPT)로 진행하십니다. 과제는 수기로 책의 일부를 요약하는 것을 내주시는 것이 특징적이다. 2학기 실습 때 보건진료소에서 실습을 하는데 이 때 마을 지도를 그려가야 한다. 이때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실제지도와 유사하게 그리는 것이 좋다.

### 구미옥 교수님



'기본간호학'을 담당하고 계시며, 수업은 주로 교수님이 만드신 프린트와 책으로 수업하십니다. 과제는 영문으로 된 간호 관련 텍스트를 번역하는 과제, 간호 논문을 요약하는 과제를 내주십니다. 수업 시 항상 정해오신 진도를 그 시간에 다 나가십니다. 처음에는 그 양이 많아 힘들 수 있으나 깔끔히 정리된 강의록과 교수님의 설명을 들은 후 복습을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 정면숙 교수님



'간호관리학'을 담당하고 계시며, 강의는 교수님께서 편찬한 책을 가지고 진행하십니다. 강의 중 들려주시는 임상경험 이야기, 병원에서 행해지는 리더십의 종류, 병원 관리방법 등은 향후 훌륭한 간호관리자가 되기 위한 발판이 되어준다. 또한 간호학, 특히 간호관리학에 있어서 한 획을 그으신 만큼 대단한 분이시기에 일상적인 모습에서도 카리스마가 느껴지고, 모든 일을 원칙대로 행하시는 모습에 존경심을 느낀다.



**은영** 교수님

‘성인간호학’ ‘노인 간호’ 및 ‘성인간호학 실습’을 담당하고 계신다. 수업을 통해서는 3학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만났는데 성인간호학에 대해 오래 연구를 하셔서 수업을 듣다보면 ‘교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설명을 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었다. 학기 초에 강의록을 한 권 주시는데 주로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시며, 책을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업을 들을 때는 항상 강의록과 책을 함께 들고 다녀야 한다.

**최소영** 교수님



‘여성간호학’과 ‘여성간호학실습’을 담당하고 계신다. 강의는 주로 지침서를 통해서 하시며, 임상경험이 풍부하셔서 강의를 듣는 동안 다양한 사례들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다. 처음 강의를 들으면 의학용어를 사용하셔서 많이 당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강의를 들을수록 익숙해져 한글보다 의학용어가 더 친숙하게 느껴진다. 과제는 개별과제와 조별과제를 내주시는데 조별과제가 개별과제내용과 이어지기 때문에 다른 조별과제에 비해 어려움이 덜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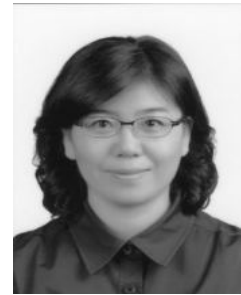
**성경미** 교수님



‘정신간호학’을 담당하고 계시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수업을 함께 진행하신다. 온라인 수업에서는 사례 발표를 하는데, 오프라인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사례를 만들어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다. 실습할 때 컨퍼런스를 하게 된다면 간호 진단을 내리는 것에 가장 초점을 두어야 한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포인트이기 때문이다.

**전미양** 교수님

'간호해부학', '약리학' 등 기초간호자연과학 과목을 담당하고 계신다. '해부학', '약리학', '기본간호실습', '건강사정실습' 등 2학년 때 가장 자주 만나 뵈게 되는 교수님이다. 그래서 교수님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의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책과 교수님께서 만드신 Powerpoint(PPT)로 수업을 진행하신다. 온화한 미소를 가지시고 학생들의 상황을 배려해서 수업해 주시는 교수님이다. 실습은 직접 환자에게 하게 되는 것들을 해보는 시간이라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수업을 진행하신다.

**하영미** 교수님

간호대학의 부학장님이시며 지역사회간호학을 전공하고 계시며, '간호정보학', '가족간호' 강의도 담당하고 계신다. PPT와 프린트로 수업하시고, 가족간호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신다. 또한 '간호정보학'의 경우 3학년이 되는 순간 이 수업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논문을 찾는 방법을 아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몸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수업을 열정적으로 하시며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에 참여하도록 잘 유도하셔서 집중하게 되고 지루하지 않은 수업을 해 주신다. 해외나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시므로 진출로 관심이 있는 경우 교수님과의 면담을 추천한다.

**유 미** 교수님

'아동간호학' 및 '아동간호학실습'을 담당하고 계시며, '글로벌간호', '간호리더십' 등 '전공 선택' 강의도 담당하고 계신다. 수업은 책과 PPT로 수업을 진행하신다. 수업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 해주시며 시험에 나올만한 것들을 수업시간에 집어주시기 때문에 집중 또 집중하길 바란다. 아동간호학 실습 컨퍼런스(Conference) 때 Case Study한 대상자에 대해 화이트보드에 간략하게 적은 뒤 실제 병원에서 인계하듯 브리핑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 장희경 교수님

'성인간호학'을 담당하고 계시며, 주로 PPT자료와 프린트, 책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신다. 또한 유일하게 강의록이 color이다.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고등학교 때 보던 문제집이 떠오를 수 있다. 항상 밝은 에너지를 뽐내며 재미있게 강의를 진행하셔서 강의가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다. 하지만 엄할 때는 엄하셔서 기본적으로 지킬 것만 지킨다면 재미있고 좋으신 교수님이다.

### 서민정 교수님

'성인간호학' 및 '성인간호학실습'을 담당하고 계시며, 강의는 PowerPoint(PPT) 자료 및 성인간호학(현문사) 교재를 토대로 진행하신다. 주교재 이외에 기타 참고자료에서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시각자료(사진, 표)를 보여주기도 하신다. 또한 2016년도 진행된 강의에서는 주요 질병과 관련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바 있다. 과제의 종류에는 간호중재에 대한 국외논문 요약 및 분석 등이 있다.



### 김보영 교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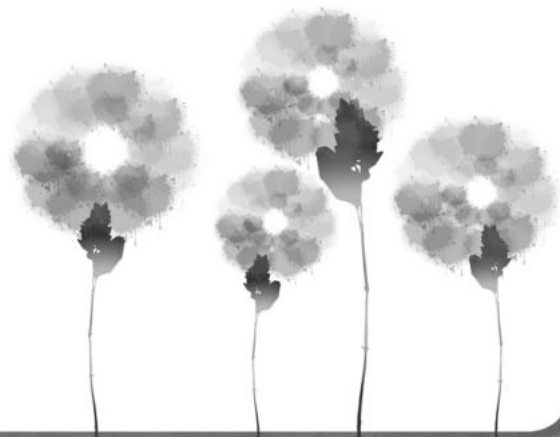
'정신간호학'과 '간호상담' 수업을 담당하고 계신다. 사례를 들어서 잘 설명하시고, 수업은 PPT와 교재로 진행하신다. 또한 숙제로 미리 예습을 할 수 있도록 PPT에 빈 공간을 만들어 두신다. 강의시간에 검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이론 강의를 끝나고 나서 PPT를 한꺼번에 걸어 검사를 하시기 때문에 검사를 안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미리 숙제를 하는 것이 좋다. 조별활동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높고 적극적으로 학생들과 소통하시며 수업하신다.





## II. 어울림 마당

- 2016, 올해의 행사
- 동아리 소개









## 2016, 올해의 행사

### 1. 2월, OT&예비대

여전히 추운 겨울날 앞으로 다니게 될 대학에 와서 처음으로 같은 학번 동기들과 선배님, 교수님을 만난 건 2월 17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입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대학본부에서 진행하며 가좌동 대강당에서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들은 후에 칠암동으로 와 수강신청을 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아침부터 가좌캠퍼스 대강당 앞에는 새내기들로 북적 거렸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간호대학 피켓 앞으로 새내기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본 동기들 또는 수시 합격 후 만나 친해졌던 동기들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강당에 들어온 간호학과의 신입생들은 경상대학교의 모든 16학번 신입생들과 함께 많은 이들의 축하 속에서 오전 오리엔테이션 일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처음으로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마친 새내기들은 그 후 칠암캠퍼스로 이동하여 수강신청도 하고, 이제는 선생님이 아닌 교수님께 인사말과 간호학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레기도 하며 막막했던 대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볼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다음날 2월 18일 더 떨리고 설레고, 그래서 왠지 모를 용기가 솟아나기도 했던 예비대가 진행되었습니다. 예비대는 신입생들이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하루 동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함께 합니다. 아침 9시에 모인 새내기들은 이름표를 받고 복합교육센터 대강당에서 학장님과 학과장님의 환영인사를 들은 후 조별로 모였습니다. 일방적으로 수업을 듣기만 했던 고등학교에서는 해보지 못한 조별활동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기들과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조 이름과 조 구호, 조가를 하나하나 정해가니 시간은 금방 흘러갔습니다. 또 경희대학교 간호 과학대학 '강영미' 교수님께 인문학과 간호에 대한 강의도 듣고, 여러 가지 게임들도 하면서 신나게 뛰어다니다 보니 어느새 예비대는 끝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어색했지만 동기들과 더 친해지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2. 3월, 새내기 한마당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다가오는 3월이었지만, 아직은 차가운 바람이 남아있던 2016년 3월 10일 간호대학 복합교육센터 강당에서 새내기 한마당이 개최되었습니다. 새내기 한마당은 학생회의 주도 아래 이제 갓 입학한 신입생들, 재학생들이 서로 인사를 하는 날입니다.

행사의 주인공인 신입생들을 보기 위해 추운 날씨임에도 교수님들과 재학생들이 대부분 참석하였습니다. 신입생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학생회 임원들의 간단한 소개와 신입생들에 대한 학장님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로 신입생들을 환영하기 위한 2,3학년 재학생들이 장기자랑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음만은 새내기이고 싶은 재학생들의 뛰어난 춤 솜씨를 드러내며 신입생들의 무대가 있기 이전에 분위기를 한껏 들뜨게 하였습니다. 재학생들의 장기자랑 이후 본격적으로 행사의 꽃인 신입생들의 장기자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해왔고, 모두가 함께하는 첫 학과 행사였던 만큼 긴장되는 순간이었지만, 모두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멋지게 무대를 마무리하였고 참석하신 교수님들과 재학생들의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입생 모두가 열심히 공을 들여 연습했던 노력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즐거웠던 신입생들의 무대를 마지막으로 행사가 종료되었습니다. 행사 이후에는 학생회에서 간식을 제공하였고, 변호라인 선배들과의 첫 모임을 가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입생들은 대학 생활과 학과 공부 등 궁금했던 사항들을 선배들에게 자유롭게 질문하였고, 선배들은 후배들을 위해 진심어린 충고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 3. 4월, 나이팅게일 선서식



간호학과에서의 가장 중요하고 큰 행사가 바로 나이팅게일 선서식입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3학년 처음 실습에 나가기 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선서 후 실습에 임하게 됩니다. 나이팅게일 선서는 1893년에 만들어져 간호사로서의 윤리와 간호원칙을 담은 내용을 간호학도들이 맹세하는 의식입니다. 간호학도들은 손에 촛불을 든 채 윤리와 간호원칙을 담은 내용들을 맹세하는데, 이때 망토는 이웃을 따뜻하게 감싸는 간호정신을 의미하고 촛불은 봉사와 희생정신을 상징합니다.

이 행사는 간호학과에서는 크고 뜻 깊은 큰 행사라서 후배들과 선배들이 선물과 꽃다발을 주며 축하를 합니다. 1학년 때부터 선서식에 참가할 때마다 선배님들이 실습 복을 입고 가운을 걸치며 촛불을 든 모습을 보며 멋지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지가 엇그제 같았는데 이번에 한다고 하니 실감이 나지 않는 상태로 처음으로 실습복과 망토를 입어보았습니다. 입어보니 간호사가 되지 않았는데도 나름 간호사가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하고 곧 실습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싱숭생숭하면서 실습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한다고 하니 떨리기도 하고 어제 열심히 외운 선서문을 더듬거리지 않고 잘 말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행사가 되기 전에 마지막 리허설을 마치고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잔잔한 음악에 맞춰 엄숙한 분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양쪽으로 한 명씩 나가서 각 교수님께 인사를 하면 교수님께서 망토를 젖혀주시는데 이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도록 마음을 열어 온 마음으로 간호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초에 불을 붙이고 반대편 학생과 마주보며 인사를 한 후 같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순서가 뒤쪽이었던 저는 점점 줄어드는 줄을 보며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차례가 시작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수님께 가서 인사를 드리고 초에 촛불을 붙이면서 앞으로 간호사로서의 도리를 갖겠다고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모든 학생이 초에 불을 다 붙이고 나자 67개의 촛불들이 아름답게 일렁였습니다. 촛불의 아름다움에 제 마음도 일렁였습니다. 그리고 나이팅게일 선서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느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나는 성심으로 보건의료인과 협조하겠습니다.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한자 한자 말하면서 앞으로 평생 동안 간직하며 수행해야 할 약속을 잊지 않겠노라고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간호사로 지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나이팅게일 선서식, 67개의 촛불이 아름답게 일렁이던 모습, 서로 한 목소리로 나이팅게일 선서를 말했던 그 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글\_ 하유진



## 4. 7월, 모의면접



병원 취업을 위한 면접 방법을 알려주기 위하여 학교에서 면접 전문가를 초청해서 모의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룹별로 나눠 각 방에 배정한 후, 자기소개 하는 법과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한 방에서는 면접관 1인에 학생 5명이 입실하여 직접 면접을 보고, 나머지 방에서는 다른 학생들 면접하는 모습을 관찰하게 하여 단시간에 면접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연습을 하게 도와줍니다.

취업을 앞둔 시점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의면접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모의면접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기소개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 한 상태였고, 말도 논리정연하게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기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는 것이 힘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민망함을 무릅쓰고 모의면접을 다녀온 것이 참 잘 했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 연습을 바탕으로 진짜 병원 면접에서는 떨지 않고 잘 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의면접은 간호대학 복합교육센터 4층에서 진행되었고, 처음에 402호에 모여 매뉴얼을 보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고, 자기소개를 쓸 때는 어떤 점을 초점을 두고 쓰면 면접관들이 더 잘 본다.”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후, 이름별로 나눠진 사람들과 한 방에 배정받게 되었고, 그 방에서 자기소개를 썼습니다. 한 명씩 자기소개를 해보았고, 면접관님은 자기소개를 한 내용에 대해 피드백을 잘 해주셔서 진짜 면접을 갔을 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가 끝난 후에는 면접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 때, 직접 면접을 해보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의 면접을 관찰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면접 연습 방식은 짧은 시간에 다양한 면접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하였고, 내가 배워야 할 점과 고쳐야 할 점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모의면접을 통해 진짜 면접 준비를 잘 할 수 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셔서 고칠 수 있었고, 잘 한 부분은 더욱 부각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료인으로서 병원에 취업을 하는 것인데, 면접이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회사 면접 내용이라 우리의 면접 내용과는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워서 다음에는 병원에 대해 지식이 많고, 간호 면접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신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글\_ 정가희



## 5. 8월, 임상적응훈련



8월 23-25일, 2박 3일의 일정으로 임상적응훈련을 하였습니다. 곧 있으면 임상에서 일하게 되는 4학년 학생들을 위해 교수님들께서 준비해주신 감사한 선물이지요.

첫 날, 하영미 교수님의 사회를 시작으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간호부장님이신 공다현 부장님의 신입 간호사 실무 적응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하면 병원에 들어가서 잘 견뎌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김상언 강사의 '조직생활과 동기부여 및 자신감으로 또 다른 나를 깨우자'라는 주제로 특강이 시작되었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로 진행하였습니다. 조금 더 색다른 활동이 준비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활동하는 그 순간만큼은 즐거웠습니다. 하루의 끝은 학생과 교수님의 한마당이었습니다. 각 방마다 교수님들과 함께 과일도 먹으면서 오늘 하루 들었던 특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앞으로 임상에 있으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하는지도 같이 이야기 하였습니다. 또한, 교수님들과 사진을 찍는 미션을 하면서 친목을 다지며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 날, 유미 교수님의 사회를 시작으로 빈명진 선배님의 임상경험에 대한 특강이 시작되었습니다. 11학년 선배님으로 가장 최근에 임상에서 신규 간호사를 겪으면서 일어났던 일과 견뎌낼 수 있었던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심정을 가장 잘 대변해주면서 앞으로 겪어야할 일을 이야기해줘서 그런지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대학교병원의 수간호사로 계신 이영숙 수간호사 선생님께서 신입간호사의 실무 적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인 신규 간호사 교육에 대한 설명과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 설명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임상에 계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임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마음으로 신규 간호사에 들어가야 할지, 어떤 배움의 자세로 교육에 임해야할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 마음을 그대로 잘 가지고 들어가서 쉽게 포기하는 간호사가 아닌 잘 버텨내고 그 속에 속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 교육들을 들은 4학년 학생들 모두 임상에서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_ 김가윤



## 6. 9월, 간스케&페스티벌

어느새 뜨거웠던 여름의 열기가 잦아들고, 하늘이 더욱 넓고 푸른, 공기가 선선해지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간호대학에서는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체육대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체육대회가 끝난 후 페스티벌과 간호대학 슈퍼스타 K(이하 간스케)가 진행됩니다. 이날은 간호대학의 재학생들 모두가 참석하는 행사로 선후배 간, 동기들 간에 친목을 다질 수 있는 날입니다. 페스티벌은 1학년들이 동기들과 그들의 끼를 뽐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간스케의 경우, 2015년 간호대학 평가인증으로 인해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해 간스케라는 이름으로 재학생들 중 자신의 끼를 표출할 수 있도록 만든 무대입니다.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이때 호응이 너무 좋아 올해도 이어 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9월 30일, 간호대학에서는 간스케와 페스티벌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해마다 빠지지 않던 행사였던 체육대회도 이 날 진행하기로 예정되어있었지만, 비가 많이 오게 되어 야외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관계로 취소가 되어 학생들의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작년에 큰 호응을 얻어 많은 기대와 관심을 모았던 '간스케'에는 올해 총 4팀이 참가하였습니다. 공연을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해왔던 만큼 4팀 모두가 엄청난 춤 실력 또는 가창력을 보여주었고, 재학생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이끌었습니다. 간스케의 뜨거운 열기를 이어 장기자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팀들은 그동안 열심히 갈고 닦았던 실력을 드러내며 멋지고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즐거웠던 간스케와 페스티벌의 무대를 뒤로 하고 마지막 순서인 시상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간스케는 재학생들의 투표로 매겨진 순위에 따라 상금을 지급하였고, 페스티벌은 각 동아리 회장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3위까지 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복합교육센터에서 각 학년별로 모여 치킨을 먹으며 뒤풀이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페스티벌을 위해 연습하면서 함께 연습했던 추억을 되새기며 우정을 더욱 더 돈독하게 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글\_ 이유빈



## 7. 10월, 대동제

대학교를 떠올리면 밤늦게까지 진행되는 축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대동제는 경상대학 총학생회가 주를 이루어 진행되는 축제로 대부분의 과들이 주점을 열고 축제 기간 동안 초대 가수들의 무대를 볼 수 있습니다. 축제는 1학년들에게는 첫 대학축제에 참여하는 설렘을 주며 2,3,4학년들에게는 칠암동을 벗어나 가좌동에서 놀 수 있는 이유를 주기도 합니다.

축제 기간 동안 초대가수들이 하루에 1~2명 정도 온다고 해서 실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실망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20분 이상 무대를 꾸며 주어 미니 콘서트에 온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동아리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또한 축제 기간 동안은 낮에 중앙도서관 앞에서 많은 부스들이 운영되니 한 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축제의 꽃은 주점이라고 처음 주점에 참여하게 되어 왠지 모를 설렘과 기대감으로 축제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입학하기 전에는 학교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주고 학생들은 즐기기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점을 준비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다 학생들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즐겁게 즐기기 위해 뒤에서는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축제가 시작하는 날 전까지 천막의 준비가 끝나면 축제 4일 중 이들은 1학년이, 마지막 하루는 2학년이 주점을 운영합니다. 서로 역할을 나누어 손님이 오도록 옷을 맞춰 입고 피켓을 들고 홍보를 하고, 주점 내에서 음식을 만들고 서빙을 합니다. 대동제에 많이 오셔서 즐기기를 바랍니다.





## 8. 10월, 90주년 행사



국립 경상대학교 간호대학이 간호교육을 시작한 지 어느덧 90년이 되었습니다. 경상대학교 간호대학은 그 동안 경남 간호교육의 산실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 한국 간호교육 및 연구, 간호 전문직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그 결과, 경상대학교 간호대학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1920년부터 수여해 오고 있는 간호사의 최고 영예인 '나이팅게일 기장'을 1989년 이춘애 선배님, 2003년 최징자 선배님, 2005년 전정희 선배님께서 수상하셨습니다. 이로써, 국내 최고의 간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경상대학교 간호대학(학장 구미옥)과 간호대학 동문회(회장 조순연), 건강과학연구원 노인건강연구센터(센터장 정면숙)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10월 27일 진주시 칠암동 간호대학 복합교육센터 대강당에서 '간호교육 90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호교육 90년 기념식은 연혁보고, 간호대학의 발자취 영상상영, 기념사 축사, 공로패 및 감사패 증정, 기념축시 낭독, 축하연주, 폐식 및 기념촬영, 간호대학 역사자료실 참관, 리셉션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호대학 대학원 출신의 상호간 정보교류와 유대강화를 위하여 '간호대학 대학원 동문회 창립총회'도 개최하였습니다.

공로패는 30년 이상 근속한 우선혜, 오현숙, 안황란 명예교수님과 권인수, 강영실, 구미옥, 정면숙 교수님께 수여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패는 조순연 경상대학교병원 전 간호부장님(간호대학 동문회장), 정옥분 경상대학교병원 간호부장님, 이종임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간호부장님, 김병성 진주시 보건소장님에게 수여되었습니다.

간호교육 90년을 기념하여 기념식과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찬란한 90주년의 역사를 보고 들으면서 내가 이 간호대학의 학생인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경상대학교 간호대학은 앞으로 펼쳐갈 100년 역사도 어엿하게 써 나갈 것입니다.

글\_ 오선영





### 9. 1월, 국가고시

입학한 지 어느덧 4년이 지나 국가고시를 치는 시기가 왔습니다. 합격률 94%가 넘는 국가고시이지만, 나만 떨어지면 어쩌나 혹시 우리 학교의 100% 합격률을 깨면 어쩌나 하는 마음으로 한 달 동안 긴장 속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1월 20일, 우리가 국가고시 친다는 걸 어떻게 알고 하늘에서는 눈을 내려주었습니다. 아침에 시험장에 갔더니 구미옥 교수님, 하영미 교수님, 전미양 교수님, 학생회 간부들 및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긴장되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입실했습니다.

간호사 국가고시는 9시에 1교시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을 시작으로 2교시 아동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정신간호학을 각 95분씩 시험을 치고 점심시간 1시간을 가지고 마지막 3교시 간호관리학, 기본간호학 보건의약관계법규를 80분간 치고 끝이 납니다. 2교시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어 다른 학교 학생들이 받아오는 도시락을 보며, 우리 학교는 어떤 도시락을 준비했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도시락을 딱 받았는데, 다른 학교보다 우리학교 도시락이 훨씬 좋아서 받자마자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맛있는 도시락을 먹고 마지막 남은 3교시를 위해서 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 국가고시에서는 3교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긴장 속에서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시험을 치고 나왔더니 지난 4년 동안 힘들었던 생활이 생각나면서 훌쩍 분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작년부터 시험 유형이 달라지면서 어렵다고 했지만, 2017년 국가고시를 친 학우들은 모두 합격을 했을 것이다. 다들 공부하느라 수고 하셨어요!



글\_ 김가운



## 동아리 소개

### ♡ 시너지



안녕하세요! 간호대학 학회지를 발행하는 동아리 '시작하는 너와 나 지금, 시너지'입니다. 바로 지금 보고 계신 이 책이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시너지에선 간호대학의 학과행사와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정기 모임이 따로 없고, 1학기와 2학기 말에 날을 잡아 학회지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학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회지를 만들면서 선배님들과 자주 접하게 되기 때문에 좋은 정보나 꿀팁들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한 해가 끝나고 완성된 시너지가 모든 학생들에게 나눠지게 될 때의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시너지에 들어오셔서 학회지에 자신의 이름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간호대학 학회지를 발행하는 동아리 '시작하는 너와 나 지금, 시너지'입니다. 바로 지금 보고 계신 이 책이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시너지에선 간호대학의 학과행사와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정기 모임이 따로 없고, 1학기와 2학기 말에 날을 잡아 학회지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학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회지를 만들면서 선배님들과 자주 접하게 되기 때문에 좋은 정보나 꿀팁들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한 해가 끝나고 완성된 시너지가 모든 학생들에게 나눠지게 될 때의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시너지에 들어오셔서 학회지에 자신의 이름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 ♡ 두벽이



안녕하세요! 두벽이는 간호대 유일한 여행 동아리입니다. 두벽이는 봄, 가을의 당일 소풍, 여름-겨울의 장기 또는 단기여행 으로 1년에 2번의 소풍과 2번의 여행을 갑니다. 주된 활동은 방학 때 하기 때문에 학기 중 학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다른 동아리와 중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행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즐거운 추억들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두벽이는 간호대 유일한 여행 동아리입니다.

두벽이는 봄, 가을의 당일 소풍, 여름-겨울의 장기 또는 단기여행 으로 1년에 2번의 소풍과 2번의 여행을 갑니다. 주된 활동은 방학 때 하기 때문에 학기 중 학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다른 동아리와 중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외랑**

안녕하세요~ 경상의대·간호대 산악동아리 외랑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1981년부터 시작한 역사가 있는 동아리로 등산과 암벽등반을 주기적으로 가는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하지 못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OB, YB산행을 통하여 OB선배님들과 친해질 수 있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좋은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 지역의 산을 탐방하며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멋진 경치들을 구경하기도 합니다. 등산은 걷기가 부족한 현대인에게 하체 강화와 심폐기능 향상, 각종 스트레스 해소 등의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선배님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동아리 활동하러 오세요~♡

♡ **반야**



반야는 스님과 함께하는 의전 연합 불교 동아리입니다. 월요일에 동방에서 법회가 있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봄소풍, 단풍 놀이를 가기도 합니다. 정이 많으시고 재밌으신 스님과 따뜻하고 다정한 선배님들이 반야에서 신입생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누렁소

안녕하세요~ 간호대의 대표 봉사동아리 '누렁소'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의과대와 간호대가 함께 활동하는 동아리입니다. 매달 둘째 주 토요일에는 장애인분들을 도와드리며 쿠키 만들기, 영화 감상 등 재미있고 보람 있는 봉사를 하며, 셋째 주 일요일에는 사천의 신애원에 방문하여 아이들과 보드게임, 생일파티, 요리하기 등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렁소'는 봉사활동을 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깊은 역사와 선배님들의 사랑으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누렁소'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미래의 간호사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 공간



안녕하세요 저희는 간호대 ucc동아리 '공간' 입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1년에 한번씩 UCC를 찍으며 2주에 한번 동아리방에서 동아리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매 동아리 모임마다 동아리방에서 치킨도 먹고 과자도 먹으면서 선배님들과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공부에 대한 조언도 들으며 고민상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선후배간의 사이가 돈독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 같은 '공간'과 함께 재밌는 그리고 추억에 남는 대학생활을 보내는건 어떨까요? '공간'가족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함께 아싸공간~! 예블바디공간~!!



♡ 의연

봉사활동 동아리 의료연구회입니다! 의연에서는 한 달에 한번 진주에 있는 '늘사랑' 사회복지시설에 봉사활동을 하러 갑니다. 중증 장애인분들의 건강을 위해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는 의료봉사와 그 외에 종이접기, 부채 만들기 등 다



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1회 참가 시 4시간의 봉사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는 졸업에 필요한 개척인증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선배님들로부터 학업에 관한 자료와 많은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2017년은 의연과 함께! 보람차고 즐거운 학교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 타스



안녕하세요. 간호의대 의전원 연합동아리 TAS(Tennis and study) 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테니스라는 운동을 통해 대학생들이 부족한 체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후배간의 교류를 통해 끈끈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니스라

는 운동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재미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부담 갖지 않고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라는 운동에 관심이 있고 선후배간의 끈끈한 정을 느끼고 싶다면 주저마시고 저희 동아리로 방문해 주세요!!



### ♡ 열린소리

열린소리는 경상대학교 간호대학의 유일한 풍물패 동아리입니다. 쇠, 장구, 북 이렇게 3개의 악기를 연습하고 있으며 한 학기 당 1번의 공연을 합니다. 또한 매주 모여 연습을 하면서 선후배 간의 정도 돈독해집니다. 열린소리는 경상대 풍물패 연합인 경풍련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가좌동의 다른 과와의 교류도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풍물패'라는 특징으로 해외봉사신청 시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같이 악을 치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선후배 간의 정도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열린소리입니다. 지화자~

### ♡ 오아시스



안녕하세요 영화를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항상 활짝 열려있는 영화 감상동아리 오아시스 입니다>\_<~~ 저희 동아리에서는 주기적인 모임을 가지는데 영화감상을 하기도 하고 친목도모를 위한 다른 재밌는 활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영화를 보는

날에는 다같이 보고싶은 영화를 선정하여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보고 다 본 후에는 영화감상평도 나눕니다~! 저희 동아리가 영화감상만 하는 동아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다른 재밌는 활동들도 많이 합니다! 다같이 볼링을 치기도 하고 가좌동 캠퍼스에서 행사가 있는 날이면 다같이 가서 구경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후배들 간의 그리고 동기들 간의 정이 많은 동아리 중 하나입니다~! 영화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또는 힘든 학업 속에서 재밌는 대학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 오아시스 동아리로 오세요^\_^!! #언제나 영화처럼~!#



♡ 아르페지오

간호의전연합 기타 동아리 아르페지오입니다. 저희 아르페지오는 매주 수요일마다 다 같이 모여 기타 연습을 합니다!!

기타를 배워본 적이 없고, 잘 못 치더라도 선배님들과 선생님들께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또 매년 정기공연을 하는데 쟈메, 셰이커, 키보드 등 다양한 악기와 같이 연주를 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공연 준비를 하면서 실력도 많

이 늘고, 선배님들과도 많이 친해질 수 있습니다!!! 살면서 하나뿐인 대학생활 재밌고 보람차고 뜻 깊게 보낼 수 있습니다>\_<



♡ 플레이어



안녕하세요~ 간호대에서 남학생이 제일 많은...PLAYER입니다.

저희 플레이어는 축구를 기반으로 간호대 남학우들 위주로 구성된 친목 동아리입니다. (여학생도 가입가능해요ㅎㅎ)

학업이든 취미활동이든 어느 방면에서나 즐기는 간호대 학생이 되자는 의미로 PLAYER로 이름을 지었고 축구를 잘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다 못하니까요....

부담 없는 동아리 활동하고 싶으신 분들, 같이 땀 흘리고 즐길 수 있는 17학번 후배님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짱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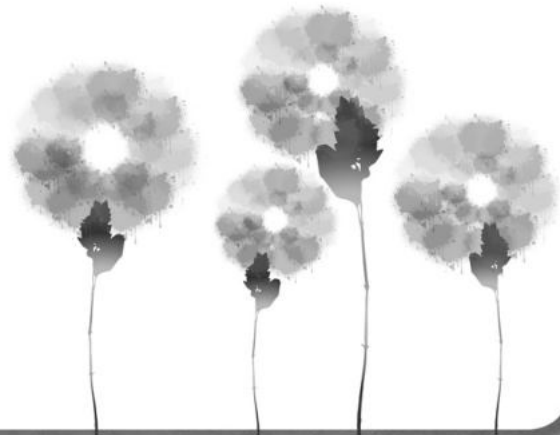






### Ⅲ. 우리 마당

- 교수님이 졸업생에게 전하는 한마디
- 선배가 후배에게 전하는 한마디
- 병원 인턴십 후기
- 4학년 연구 논문
- 성공 취업 선배 인터뷰
- Global Nursing program 참가 후기
- 깨알 정보







## 교수님이 졸업생에게 전하는 한마디

### 그 길을 먼저 걸어보니

졸업할 학생들이 힘들고 지칠 때  
꺼내어 보고 싶은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두려웠다.

나는  
그 길을 잘 걸어왔는지?

나는  
어떻게 견디어 왔는지?  
그래서 내가 그 길을 알려줄 수 있을까?  
아직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와 생각하니  
슬픈 일도, 힘든 일도, 피곤하고 지친 일도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그 시절이 얼마나 향기롭고 아름다웠는지 그리울 뿐이다.

앞으로 여러분 앞에 펼쳐질 길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가시밭길도  
박수를 받을 영광스러운 길도 아닌 간호사의 길일뿐이다.

그 길 위에서 아침마다 어제 저녁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 하고 싶어 하는,  
밤이면 오늘 하루 얼마나 고단했냐고 위로해 달라 손내미는 이들을 만날 것이다.  
그때는 무겁고, 부담스럽고, 벅차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오십을 맞이한 지금에야 생각하니  
조금 더 들어줄걸, 조금만 더 손잡아줄걸 아쉽기만 하다.

희생하라 하지 않고, 봉사하라 하지 않고 사랑하라 하지 않고 싶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에 자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배우고 익힌 지식과 기술에 자신심을 가지고  
힘껏 걸어가라 하고 싶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니  
길을 잃으면 꼭 길을 물어라 하고 싶다.

앞서 걸어본 선배에게  
함께 가는 동무에게  
또는 뒤 따라오는 후배에게  
그리고 우리가 손잡고 가야 하는 모든 그들에게.



## 선배가 후배에게 전하는 한마디

### ♡ 4학년 학교생활

4학년, 자유롭다고 말하면 자유롭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학과의 4학년들과는 다르게 가장 바쁜 한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우선 1학기를 먼저 살펴보면 취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학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대외활동을 정리하고 봉사 및 토익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서울 쪽에 취업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토익이 850점 이상 되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병원 공고는 3월이나 4월 즈음 되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스펙 및 학점 관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는 4학년 1학기 성적이 들어가지 않는 병원들도 있기 때문에 수업을 소홀히 할 수 있으나, 나중에 대학원이나 서울권 병원에서 필요한 곳도 있으니 방심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4학년 1학기가 지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핵심 술기를 시행합니다. 핵심 술기는 저희가 실습을 하면서 과목별로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것을 시험 치게 됩니다. 3일 동안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약 9개 정도 프로토콜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자율학습처럼 핵심 술기 연습을 하고, 출석체크도 교수님께서 하십니다. 연습을 하고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시험의 감독은 학과 교수님, 수간호사 선생님, 대학원 선생님들께서 점수를 매겨 주십니다. 프로토콜의 시험은 프로토콜 순서대로 시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점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남은 시간에 따라 대기실에서 조교님께서 복을 칩니다. 시간을 엄수하시고, 순서를 열심히 외우고 술기가 손에 익숙해지게 외우신다면 아마 재시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 술기가 끝나고 나면 졸업여행을 가게 됩니다. 저희는 2박 3일로 거제도에 다녀왔습니다. 하루는 임상 적응훈련에서 KT 청소년 수련원에서 임상 적응 훈련을 했습니다. KT 청소년 수련원에서의 밥은 아직까지 인상이 깊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는 거제로 가서 외도, 바람의 언덕, 몽돌해수욕장 등 거제도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간호학과에서는 학과 전체로 같이 엠티가 잘 없었기 때문에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권 병원은 여름 방학 전에 원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이 여름 방학쯤에 있기 때문에 같은 병원을 쓰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스터디를 만들어서 면접을 준비하는 등 여러 가지 준비를 방학이 되기 전에 계획을 하여 방학이 되면 스터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경상대학교 병원의 원서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토익을 여름방학 전까지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2학기가 시작되면 이제 모든 것이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이고, 국가고시만 앞두고 있게 됩니다. 학기 중에 실습을 하면서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크게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 준비를 하신다면 나중에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마지막 학기 실습은 교외로 나가는 실습이 다른 것보다 적었습니다. 창원에 NICU나 분만실 실습을 가는 것이 있는데, 실습 조별로 나뉘게 됩니다. 창원으로 실습을 가는 경우에는 창원 주변에서 사는 사람은 집에서 통학을 하고, 기숙사가 필요한 사람은 경남학숙을 사용하게 됩니다. 학숙은 가격은 저렴하나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병원에서 버스를 타고 약 40분 정도 걸리며, 방이 조금 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기숙사나 적당히 묵을 숙소가 없기 때문



에 방이 없으신 분들은 학숙을 이용하시고, 학숙을 사용하는 학생이 4명 정도이면 짝을 맞추어 택시를 타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2학기도 어느덧 실습을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게 됩니다. 2학기 때에는 졸업인증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봉사활동이나, 독서 등 졸업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정리하시고 마무리해두셔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지 않으신다면 졸업을 못하니까 꼭 신경 쓰셔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호학과의 마지막 관문인 국가고시! 저희는 국가고시가 1월 20일이었습니다. 국가고시는 열심히 준비하신다면 합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후배님들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어떤 길인가 잘 생각해보시고, 열심히 미래를 그리셔서 자신에게 적합한 좋은 길을 찾아 진로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 간호학과의 3학년

간호학과는 학년별로 특징이 많이 달라지는 학과인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는 교양을 듣고, 2학년 때는 전공 수업만을 듣고, 3학년 때는 블록 수업을 합니다. 블록 수업은 수업뿐만 아니라 실습도 해야 하는 간호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입 되었습니다. 만약 학점이 2학점짜리 강의라면 원래는 일주일에 2시간 수업을 들어야 하는 반면에 블록수업은 일주일에 4시간동안 강의를 들어야합니다. 3주간 수업 후 중간고사를 치고, 다음 3주 동안 수업을 한 뒤에 기말고사를 칩니다. 이것을 블록 수업이라고 합니다. 학과 일정이 빠듯하다보니 과제와 시험공부로 정신이 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니 후배님들께서는 미리 과제와 공부를 하여 삶의 질이 높은 생활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기말 고사를 친 뒤에는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1박 2일로 순천의 국가정원과 순천만 자연생태 공원을 방문 하였습니다. 많은 사진으로 추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밤에는 직접 고기를 구워 먹고, 된장국과 밥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직접 만든 만큼 더 맛있었습니다. 교수님과 학생들이 다 함께 어울려 노는 것이 따뜻한 기억의 한 장면처럼 잊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을 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졸업여행을 가려니 학과 일정을 행하는 의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졸업여행을 가니 중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떠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실습을 하기 전에 행복한 추억과 기억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졸업여행이 될 수도 있는 기회이니 꼭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시험도 쳤고, 졸업여행도 다녀온 뒤에는 6~7주에 걸쳐 실습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실습은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하고, 지역사회간호 실습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하였습니다. 7시 반까지 실습하는 병동에 가서 오후 4시 반까지 실습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습하는 동안 계속 서있다 보니 처음 실습하고 왔을 때는 다리가 통통 붓기도 하였습니다. 발바닥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실습하는 동안에 간호사 선생님의 눈치를 보고, 긴장한 상태로 있다 보니 실습이 끝나면 쓰러져서 자기 일수였습니다.

실습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정신간호학실습이었습니다. "오빠 머리 내리니까 잘 생겼지?"라고 말하는 환자분도 계셨고,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아는 누나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같이 고스톱치자고 권하시거나, 편지를 써주시는 환자분도 계셨습니다. 정신병원의 환자분들은 유독 실습생들에게 관심이 많으셨고 저희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저희가 할 일은 거의 환자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이었습니다. 실습을 하면서 느낀 것은 환자분들이 저희와 함께 있는 것을 무척 좋아하시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습을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가만히 서있는 병풍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알아서 할 일을 찾아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실습에 적응하면서는 환자와 말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일을 해결해 주는데 어려움이 줄어들었습니다. 매주 컨퍼 준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아졌습니다. 이브닝 실습을 하고 나온 뒤 어두워진 밤하늘을 보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다른 학과보다 바쁜 학과 일정을 보내는 경상대학교 간호학과 여러분 힘내시고 즐거운 학과 생활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글\_ 노은진



## ♡ 2학년이 맞이할 새로운 생활

2학년이 되어 칠암캠퍼스에 가게 되면 가좌캠퍼스 생활과는 또 다른 새로운 생활에 직면하여 새롭게 느껴질 1학년들을 위해 몇 가지 우리가 느낀 1학년 때와는 다른 생활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칠암캠퍼스는 가좌캠퍼스보다 학교가 작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남문에서 북문이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닐 때는 편하기도 하고 선배님과 교수님과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교직이수를 하거나 가좌동에 집이 있는 친구가 아닌 한 가좌동에 갈 일은 매우 드뭅니다. 또 칠암캠퍼스를 가게 되면 2학년 때 기숙사 수용인원이 적어져 기숙사보다는 자취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1학년 때에는 교양수업을 듣기 위해서 여기 저기 강의실을 찾아다니면서 다녔다면 2학년 때에는 평생교육원 한 강의실에서만 수업을 다 들어 1학년 때처럼 강의실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2학년이 되면 1학년 때의 성적을 토대로 교직이수를 할 친구들을 뽑아서 올라오게 되는데 교직은 전공 선택 과목 대신 교직과목을 듣게 됩니다. 교직을 할 생각 있으면 1학년 때 성적을 정말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학년이 되어서는 1학년 때는 한두 개 씩 배우던 전공수업이 전부 전공수업으로 바뀝니다. 1학기에 배우는 과목으로는 기본간호학1, 간호생리학, 간호생화학(의대교수님 수업), 간호해부학,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간호정보학, 성인간호학총론이 있습니다. 기본간호학과 간호해부학 수업은 실습과 같이 병행합니다. 생리학과 해부학은 내용이 엄청 많은 편인데, 시험 공부를 하려면 다 외워야 하니 외울 게 너무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기본간호학은 정말 간호의 기본을 배우는 느낌입니다. 2학기에 배우는 과목으로는 기본간호학2, 병태생리학, 간호약리학, 건강사정, 간호상담, 가족간호, 간호미생물학(의대교수님)가 있습니다. 기본간호학, 건강사정, 간호미생물학 수업 또한 실습과 같이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기본간호학 수업은 1학기과 같이 간호의 기본을 배우지만 항상 수업이 쉴 틈 없이 진행되고 진도가 빠르니 필기를 열심히 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약리학, 미생물학, 병리학 수업 같은 경우는 다 외우는 수업이고, 양도 많은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 될 것입니다. 건강사정은 은근히 일상생활에 많이 쓰여서 배우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간호상담은 1학기에 배운 인간관계 의사소통과 내용이 연결되어있습니다. 1학기에 배운 것을 토대로 2학기에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실습은 아니지만 짝과 함께 의사소통 기법을 적용해보는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 수업을 통해 대화를 할 때에도 방법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이런 것을 배워서 정말 각 상황에 맞춰서 쓴다면 매우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공 수업 가운데 숨어있는 썬더 같은 느낌의 수업입니다.

2학기 수업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모두 1교시로 시간표가 나와서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야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간호대 평생교육원에 2학년 정독실이 따로 있어서 제비뽑기로 정독실을 사용할 사람을 뽑는데 시험 공부할 때에는 정독실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음식을 먹으려면 가좌동에서는 곳곳에 교내 식당이 있는데 칠암에는 학교식당이 기숙사 식당밖에 없어서, 집에서 먹거나 밖에서 사먹어야 합니다. 갈 만한 데로는 산대쭈꾸미, 부대찌개, 국수나무, 수돈까스, 맥도날드, 알통떡강정, 꽃마름, 감자탕, 삼성뷔페, 아웃백, 현대옥, 여러 국밥집이 있고요. 치킨 집으로는 오꾸닭, 치킨빠샤, 포크두개, 얼큰이, 훌랄라치킨, 치킨매니아 등이 있습니다. 술 가게로는 노상, 양반의 체면, 헤이브로, 청춘포차, 칠성포차가 있습니다. 카페는 찾아보면 주위에 꽤 많습니다. 가좌동은 심땅, 게임랜드, 북카페, 방탈출 등 쉴 곳도 많고 놀 데도 많은데, 칠암동은 게임랜드 2개가 전부라서 놀 데가 없어서 놀고 싶다면 가좌동이나 시내를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글\_정은정



## ♡ 신입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신입생 예비대 때 동기들을 처음 만나 어색했지만 조 이름을 만들고 같이 게임하면서 친해졌었고 새내기 한마당을 준비하면서 과방에서 춤 동작들을 맞춰보고 하면서 같은 조였던 친구들이랑 더 친해졌었습니다. OT와 예비대를 마치면 번호라인 선배들과 만나서 앞으로의 학교생활에서 모르는 것들이나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며 친해지는 대면식을 합니다. 대면식은 4,3,2 학년 순서로 연달아서 진행됩니다. 번호라인은 경상대학교 간호학과만의 전통으로 각 학년별로 한 명씩 이름순으로 정해집니다. 번호라인이 정해지면 책이나 족보 등을 번호 선배에게 물려받기도 하고 번호모임을 통해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새내기 한마당은 선배님들을 제대로 만나는 자리여서 더 떨렸었고 긴장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벚꽃이 피면 가좌캠퍼스 인문대학 앞에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도 있습니다. 중앙동아리 신청기간이 되면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동아리별 부스가 설치되고 홍보를 합니다. 스킨스쿠버, 패러글라이딩, 마술, 봉사, 탁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동아리가 있으니 관심이 가는 동아리에 가서 상담을 받고 동아리에 가입하면 다른 학과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과팅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과의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으며 많이 들어오니 한 번쯤은 나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총학생회 주관의 행사가 많이 있으니 페이스북 페이지나 포스터를 잘 보고 많이 참여하길 바랍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무료 간식 나눔이 선착순으로 있으니 기회가 되면 일찍 가서 줄을 서는 것이 좋습니다.

2학기가 되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수강신청을 합니다. 수강신청에는 모바일과 pc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강신청 시 개인차가 있지만 pc로 하게 되면 보안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시간표를 짤 때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니 공강을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양을 고를 때는 번호 선배에게 족보를 받은 과목이나 추천 받은 강의를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교양강의를 신청할 때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몰리는 강의를 피해야 합니다. 교직 이수를 하기 위해서는 1,2 학기 성적 관리를 매우 잘해야 합니다. 대학 영어1,2를 듣지 않고 영어 전용 생활관에 살면서 저녁에 수업을 듣고 6학점을 대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활관은 6인실로 다른 학과 학생들과도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1학기 때는 학과 행사가 많으므로 2학기 때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문에는 바르윈, 꾸분, 국수나무, 동경야시장, 비가 오는 날에, 핑크빛 청춘들, 불량포차 등이 있고 후문에는 라멘트럭, 고송당, 경야, 벙커, 주당, 닭제이, 이모네, 포장마차, 치킨빠샤 등이 있습니다. 만약에 통금을 못 지키게 되면 정문에 있는 24시간 운영하는 엔젤인어스, 심심풀이 땅콩을 가거나 후문의 라이브 노래방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1학년을 마치며 아쉬웠던 점은 여러 사람들과 더 친해졌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과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참여해볼걸 하는 아쉬움, 가좌캠퍼스에서 많이 놀기는 했지만 좀 더 제대로 즐기고 왔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는 신입생들은 1학년 때 가좌동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 많이 참여하고, 중앙동아리나 과 동아리에 가입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동아리에 들지 않았으면 무슨 재미로 대학생활 했을까 싶을 정도로 재밌었습니다. 캠퍼스도 많이 둘러보고 여러 맛집들도 많이 찾아가보고! 학교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도 동기들과 더 많이 친해지고 선배님들과도 돈독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행사에는 많이 참여해보고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더 빠르게 1학년 생활이 끝난 것 같아 많이 아쉬워지만 17학년 후배님들은 저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재밌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_ 1학년 이미영





## 인턴십 후기

### <아산 병원 인턴십 후기1>

3학년 2학기 실습을 끝마치고 난 후 숨 돌릴 틈도 없이 아산 병원 인턴십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에 들어갔다. 정성 들여 쓴 자기소개서와 함께 필요한 지원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다.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모니터에 뜬 "합격"이라는 두 글자는 취업 성공도 아닌 인턴십 합격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데는 충분했었다. 그렇게 설렘과 기대, 또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서울로 향했다. 나는 아산 병원 인턴십 1차수(2017. 01. 09 ~ 2017. 01. 13)에 동기 4명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인턴십 첫 번째 날은 소강당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아산 병원의 규모, 간호부 비전, 간호 팀장님 말씀, 신규 간호사 이야기, 전문간호사 이야기 등 많은 주제를 다루었는데 특히 간호사의 업무 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대목이 "간호사가 행복해야 행복한 간호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아산 병원은 CICARE, 린넨전담교환반, 이송반, 밤번전담간호사제도, 해외연수 프로그램, 경력관리 시스템(CLS) 등 많은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었고 간호사의 말에 귀 기울이고 문제점들을 개선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들은 간호사가 간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간호의 질뿐만 아니라 간호사 업무에 대한 자긍심도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인턴십 두 번째 날부터는 각자 배치 받은 병동으로 가서 수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프리셉터 선생님과 1:1로 교육을 받는다. 이것이 3, 4학년 때 하는 임상실습과 가장 다른 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학생 한명 당 프리셉터 선생님 한 명을 붙여주기 때문에 간호사 선생님들의 업무를 더욱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고, 궁금한 것들을 바로바로 질문하며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인턴십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아산 병원의 소화기 내과 중 한 병동에서 인턴십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프리셉터 선생님 한 분을 계속 관찰하며 그 병동에 어떤 환자 분들이 많이 오는지, 주로 시행하는 시술은 무엇인지, 시술 전후로 해야 할 간호는 무엇인지 등 전반적인 내용부터 간호사선생님께서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시스템적으로 어떤 것들이 다른지 등을 관찰할 수 있었다. 선생님들께서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CICARE(Connect, Introduce, Communication, Ask, Respond, Exit)를 몸소 실천하고 계셨던 것이 인상 깊었고, 위험약물을 간호사 2명이 확인하도록 하는 것, 추가 오더나 약물을 확인하는데 있어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투약사고를 예방하는 것 등 환자안전과 기본간호에 매우 충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턴십 중간에는 약물계산과 IV주사 교육 그리고 간호사례를 읽고 간호진단부터 간호중재를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간담회 시간도 가진다. 이러한 교육 시간은 오래 전에 배웠던 간호 지식을 다시 상기시켜주기도 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끝으로 아산 병원 인턴십에 참여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간호사가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제대로 된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환자분들의 말에 귀 기울여 소통하는 따뜻한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운 환경에서 경험을 하는 것은 어쩌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임상실습에서도 물론 배울 것이 매우 많지만,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간호사 생활을 하는데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도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으로서 더 많이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경험해보았으면 좋겠다.

글\_ 3학년 이주영



### <아산 병원 인턴십 후기2>

저는 4차수의 일정 중에서 1월 9일부터 1월 13일까지 5일간의 1차수 기간에 2017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인턴십을 다녀왔습니다. '빅5병원에 속하는 서울아산병원의 간호는 어떨까?', '간호사의 전문성과 소통과 배려를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울아산병원 인턴십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은 8시 50분까지 가서 배치부서를 확인하고 인턴십 과정 안내, 간호부소개, 간호전문성을 볼 수 있었던 간호사선생님들의 강의 등의 교육을 받고 배치부서에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서 1지망으로 일반외과를 신청했던 저는 신장이식·혈관외과에 배정되었습니다. 둘째 날부터 수간호사 선생님께서 1:1로 짝지어주신 프리셉터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간호를 자세하게 관찰하고 질문하고 교육받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IV와 투약을 주제로 기본술기교육이 있었습니다. 셋째 날 또는 넷째 날에는 팀별 간담회가 있어 주어진 사례를 분석하여 팀원들과 함께 간호과정을 세워보았고 마지막 날은 다 같이 모여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인턴십에서 인상깊었던 것은 크게 4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아산병원은 간호사가 행복한 병원이고 환자를 위하는 병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환자이송반, 린넨교환 전담인력, 간호조무원과의 정확한 업무 분담을 통해 병동 밖으로 나가지 않고 간호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병동에 따라 야간전담간호사제도가 있어 나이트근무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병실 라운딩을 1시간에 1번 이상 돌고 약 처방이 나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환자의 증상이나 요구에 따라 거부한다면 꼭 필요하지 않은 약인 경우에는 안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류가 없도록 투약 후 하나하나 수행을 확인하고 기록하여 정말 환자의 안전을 위하는 병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CICARE라는 환자와의 의사소통 표준방침도 있어 환자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간호사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신입직원 교육, CS과정, 영어회화 교육 등 아카데미 교육이 있었고 프리셉터 제도, 시뮬레이션 교육, 사이버 연수원 교육, 해외교육 등 지식과 경험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Career Ladder System이라는 간호사 경력관리제도, 국제 자격증 취득 지원, 전문간호사제도, 응급환자 관리시스템인 MAT, 챔피언 간호사제도가 있어 전문성을 키우기에 좋은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최첨단 의료정보시스템과 장비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체 개발한 AMC간호정보체계, 혈당측정, 동맥혈 가스분석 등 현장에서 수행된 검사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현장검사 자동화 시스템, Mobile을 이용한 업무 지원으로 간호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밖에 신장이식, 간이식, 췌장이식, 혈관외과에 관련된 병에 대한 병태생리, 간호, 약물을 관찰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간호팀장님과 수간호사 선생님, 프리셉터 선생님과 서울아산병원, 간호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병동에서 서울아산병원의 시스템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프리셉터 선생님과 다니면서 어떻게 간호를 하시는지 관찰하고 환자가 현재 자리가 없는 6인실을 원하는 경우, 식사와 TPN 모두를 거부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내가 간호사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가 된다면 어떠할지, 간호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턴십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4학년 연구 논문

###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수행능력간의 관계

김민진, 배소연, 이정은, 박재현, 송자윤, 김지희, 임현명, 김순덕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기관이 대형화, 기업화 구조로 변화하고 병원 직무의 전문분야가 세분화됨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건강개념의 변화와 고객의 건강의식 향상으로 더욱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간호대학은 단순히 간호 업무만을 잘하는 학생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양의 정보를 스스로 찾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판적 사고능력은 임상적 상황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능숙하고 다차원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다. 비판적 사고능력이 높은 간호사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상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의료인으로서 다른 이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며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간호학생의 임상 수행 능력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임상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 성향, 임상실습만족도 및 임상실습수행능력을 파악하고 그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1)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 성향, 임상실습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을 파악하고,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 성향, 임상실습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을 파악하며, 3)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 성향, 임상실습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 성향,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수행능력을 확인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G도 J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간호대학생의 리더십을 평가하기 위해 Maze(1998)가 개발한 셀프리더십 측정도구를 김한성(2002)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자기기대(3문항), 리허설(3문항), 목표설정(3문항), 자기보상(3문항), 자기비판(3문항), 건설적 사고(3문항)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배두이(2015)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6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0이었다.

비판적 사고 성향은 윤진(2004)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개발한 평가도구를 저자의 사용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지적열정/



호기심 5문항, 신중성 4문항, 자신감 4문항, 체계성 3문항, 지적 공정성 4문항, 건전한 회의성 4문항, 객관성 3문항의 7개 요인으로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5점의 Likert 척도로 총 점수의 범위는 27점부터 13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윤진(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조결자, 강현숙(1984)이 개발한 도구와 이성은(2001)이 개발한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도구를 이순희, 김숙영, 김정아(2004)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실습교과 문항 3개, 실습내용 문항 6개, 실습지도 문항 9개, 실습환경 문항 7개, 실습시간 문항 3개, 실습평가 문항 8개 등 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차애주(2013)의 연구에서 도구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9이었다.

임상실습수행능력은 이원희 등(1990)이 개발하고 최미숙(2005)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임상수행능력에 관한 5개 영역 즉 간호과정 11문항, 간호기술 11문항, 교육/협력관계 8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6문항, 전문직 발전 9문항,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척도(매우 못한다: 1점, 약간 못한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잘한다: 4점, 매우 잘한다: 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차애주(201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4이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기간은 2016년 9월 13일부터 30일까지이고,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문지 작성에 대해 대상자들의 동의를 서명으로 얻은 후 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접 기록하게 하였고 설문지 작성 예상 소요시간은 10~15분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셸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수행능력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은 남자 10명(12.5%), 여자 70명(87.5%)이었다. 학년은 3학년이 40명(50.0%), 4학년이 40명(50.0%)이었고, 셸프리더십 교육 경험은 '없음' 10명(12.5%), '있음' 70명(87.5%)이었다. 간호학 전공만족도는 '매우만족' 7명(8.8%), '만족' 33명(41.3%), '보통' 35명(43.8%), '불만족' 3명(3.8%), '매우불만족' 2명(2.5%)이었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매우만족' 4명(5.0%), '만족' 31명(38.8%), '보통' 36명(45.0%), '불만족' 7명(8.8%), '매우불만족' 2명(2.5%)이었다.

2) 간호대학생의 셸프리더십은 90점 만점에 61.9점이었고, 비판적 사고성향은 135점 만점에 93.7점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는 155점 만점에 평균 103.1점이었고, 임상실습 수행능력은 225점 만점에 평균 155.9점이었다.

3) 셸프리더십은 학년( $t=-3.41$ ,  $p=.001$ )과 전공만족도( $F=3.752$ ,  $p=.008$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 분석 결과 셸프리더십은 4학년이 3학년보다 높았으며 전공만족도에 있어서는 '매우 만족함'과 '만족함'이 '불만족함'과 '매우 불만족함'보다 높았다.



4) 비판적 사고성향은 학년( $t=-3.20, p=.002$ ), 전공만족도( $F=3.99, p=.006$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 분석 결과 비판적 사고성향은 4학년이 3학년보다 높았으며 전공만족도에 있어서는 '매우 만족함'과 '만족함'이 '불만족함'과 '매우 불만족함'보다 높았다.

5) 임상실습 만족도는 학년( $t=-2.05, p=.043$ ), 전공만족도( $F=14.959, p<.001$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분석 결과 임상실습 만족도는 4학년이 3학년보다 높았고, 전공만족도에 있어서는 '매우 만족함'과 '만족함'이 '불만족함'과 '매우 불만족함'보다 높았다.

6) 임상실습 수행능력은 전공만족도( $F=10.04, p<.001$ ), 임상실습 만족도( $F=14.959,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분석 결과 전공만족도에 있어서는 '매우 만족함'과 '만족함'이 '불만족함'과 '매우 불만족함'보다 높았고, 임상실습 만족도에 있어서는 '매우 만족함'과 '만족함'이 '불만족함'과 '매우 불만족함'보다 높았다.

7)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 만족도 및 임상실습수행능력 간의 상관성은 셀프리더십과 비판적 사고성향( $r=.70, p<.001$ ), 임상실습만족도( $r=.35, p=.002$ ), 임상실습 수행능력( $r=.50, p<.001$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실습만족도( $r=.35, p=.001$ ), 임상실습 수행능력( $r=.54, p<.001$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임상실습 만족도와 셀프리더십( $r=.35, p=.002$ ), 비판적 사고성향( $r=.35, p=.001$ ), 임상실습 수행능력( $r=.61, p<.001$ )은 양의 관계를 보였다.



####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 수행 능력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 학생의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 성향,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을 파악하고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학생 80명을 최종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셀프리더십은 성별, 학년,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교육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비판적 사고성향은 성별, 학년,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교육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임상수행능력은 성별, 학년,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셀프리더십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간호대학생들이 인지하는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은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간에는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본 연구는 일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 2)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교육과정을 개편할 때,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석기, 강민훈, 이유민, 한규철, 황민지, 최귀환, 이지현, 최보경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간호교육의 목표는 간호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질적인 간호 수행능력을 가진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간호학생은 이론교육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교육을 통해 총체적인 간호지식과 실무를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과 기본간호기술을 실제에 적용해보고 문제해결, 의사결정 및 조직과 시간관리 능력을 익힐 수 있어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기본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처럼 임상실습교육이 간호학생에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동시에 병원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간호학생들은 심각한 불안과 긴장을 유발하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스트레스는 간호학생의 수면에 영향을 끼친다. 수면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하루 동안의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켜 삶의 원동력을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트레스는 불면증의 발생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단기 불면증의 발생에 있어 스트레스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단기 불면증은 대부분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으로 시작되어 일시적 증상을 보이다 소실되는 것이 보통이나, 성인인구의 9~12% 정도에서는 이러한 단기 불면증이 만성화되는 경우가 있다. 만성불면증은 이환된 개인에게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기간동안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수면의 질 증진 전략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1)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를 파악하고 2) 대상자의 수면의 질을 파악하며 3)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 3, 4학년의 수면의 질, 임상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G도 J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학생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수면의 질은 Buysse 등(1989)이 개발한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PSQI)를 조용원(2004)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수면의 질을 7개 영역(주관적인 수면의 질, 수면의 잠복기, 수면 기간, 습관적인 수면의 효율성, 수면방해, 수면제 사용, 낮 동안의 기능 장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소 0점에서 최대 21점의 총 수면 지수가 산출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낮음을 의미하며, Buysse등(1989)은 5점을 기준으로 전체 점수가 5점 이하인 경우 'good sleeper(적절하게 잠을 잔 경우)', 5점 이상인 경우를 'poor sleeper(적절하게 잠을 이루지 못한 경우)'로 분류하



였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79이었다.

임상실습스트레스는 황성자(2002)가 간호대학생들의 개방형 질문에 답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개발한 임상실습스트레스척도로 총 58문항의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3개의 영역(상황특성, 개인특성, 외부적 조정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는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5이었다.

자료 수집은 2016년 9월 13일부터 30일까지이며 연구대상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하도록 한 후 직접 회수하였다. 설문지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20분 정도이었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통계분석 방법은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t-test, ANOVA 및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남학생이 15%, 여학생이 85%이며, 평균연령은 21.7세, 3학년, 4학년 각각 50%이며, 거주유형으로는 집 및 자취 각각 20%, 기숙사는 60%였고, 방사용형태로는 혼자 33.8%, 타인과 함께 지내는 경우가 66.3%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좋다' 11.3%, 좋다 40%, 그저 그렇다 40%, 나쁨 7.5%, 매우 나쁨이 1.3%이었다.

2) 간호대학생의 건강행위 중 음주는 전혀 하지 않는다 20%, 한 달에 1~2번 61.3%, 일주일에 1~2번 17.5%, 매일 마시다가 1.3%였고, 흡연은 전혀 하지 않는다 97.5%, 반갑 미만 2.5%이었다. 운동은 주 6~7회 5%, 3~5회 10%, 1~2회 31.3%, 1회 미만인 53.8%이며, 수면시간은 7시간이상 43.8%, 6시간 이상 7시간미만 23.8%, 5시간이상 6시간미만 23.8%, 5시간 미만 8.8%였다.

3)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매우 만족함 7.5%, 만족 38.8%, 보통 41.3%, 불만족함 11.3%, 매우 불만족함이 1.3%이었다. 실습만족도는 매우 만족함 5%, 만족함 33.8%, 보통 47.5%, 불만족함 11.3%, 매우 불만족이 2.5%이었다.

4) 간호대학생의 수면의 질의 전체 평균은 6.28점이며, 영역별 점수 중 주관적인 수면의 질은 1.24점, 수면의 잠복기 1.36점, 수면기간 0.98점, 습관적인 수면의 효율성 0.4점, 수면 방해 0.88점, 수면제 사용 0.63점, 낮 동안의 기능장애는 1.36점이었다.

5)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의 전체 평균은 3.12점이며, 영역별 점수 중 상황특성은 3.16점, 개인특성은 3.17점 및 외부적 조정요인은 2.83점이었다.

6)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면의 질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 학년( $t=5.77$ ,  $p=.00$ ), 운동( $F=3.93$ ,  $p=.01$ ), 주관적 건강상태( $F=2.65$ ,  $p=.04$ ), 전공만족도( $F=3.01$ ,  $p=.02$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면의 질 정도를 비교한 결과, 학년( $t=2.48$ ,  $p=.020$ ), 수면시간( $F=3.30$ ,  $p<.001$ )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각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면의 질 점수와 임상실습 스트레스( $r=.32$ ,  $p=.004$ ), 주관적 건강상태( $r=.30$ ,  $p=.006$ ), 전공만족도( $r=.37$ ,  $p=.011$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감소 및 수면 증진 전략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3.12 \pm 0.64$ 로 보통정도였으며, 대상자의 수면의 질 점수는 평균 6.28으로 5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의 수면의 질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3학년이 높았고, 수면의 질 점수도 3학년이 높았다. 이는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나쁜 것을 의미한다. 또한 4학년이 3학년보다, 운동을 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와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높았다. 그러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3학년이 4학년보다 높았으며, 수면시간이 짧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을 조사한 것이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타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3)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수면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성공 취업 선배 인터뷰 : 서울대학교병원



09학번 박한나 선배님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경상대학교 09학번 박한나입니다.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Q. 간호학과에 입학하려했던 동기는 무엇인가요?**

A. 수능점수가 맞아서.. 하하 점수에 맞춰서 들어왔어요.

**Q. 학교생활, 행사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무엇인가요?**

A. 저는 학교생활을 대부분 재미있게 보냈는데 기억에 남았던 일은 제가 학생회를 했었어요. 마지막에 총회를 하는데 그 때 서로 언쟁을 벌인 것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많이 힘들었거든요.

**Q.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보람찼던 일이 있나요?**

A.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 간호학과는 영어캠프에서 보건간호사를 맡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을 맡았을 때 보람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갔었는데 거기서 제가 간호학과를 다니니까 응급구조요원을 맡아서 할 수 있었어요. 그 때, 제가 아직 간호사 자격증도 없었는데도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으니까 외국에서도 응급구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보람찼었습니다. '간호학과를 다니니까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Q. 다양한 직종(보건교사, 간호직 공무원 등) 중 병동간호사를 선택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저는 사실 과를 선택할 때 특별히 기준을 둔 건 아니었고, 응급실 간호사 아니면 병동간호사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물론 수술실 간호사도 있지만 병동간호사는 다른 과랑 다르게 환자들이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게 간호의 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동간호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많은 다른 병원 중 서울대 병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자대병원도 좋지만 저는 서울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 유명한 곳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제가 big4는 모두 지원을 했는데 아산이랑 서울이랑 두 군데를 붙였어요. 근데 아산은 아무래도 기업병원이니깐 힘들 거라고 생각했고 서울대병원은 국립병원이기도 하고 간호사가 근무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들어서 서울대 병원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Q. 근무하시면서 느낀 서울대병원만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A. 장점은 생각보다 많아요. 첫 번째는 지금 학생분들 실습 나갈 때보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내리는데 저희는 이송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환자들을 내리지 않고, 이송 등록을 하면 이송원들이 환자를 검사실에 보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두 번째로 좋은 점은 약타는 거랑 bed making도 학생간호사들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는 아예 AN님이 맡아서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환자들 간호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Q. 혹시 단점도 있나요?**

A. 단점이라고 하면.. 중증도가 높은 편이에요. 이걸 저희병원만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병원엔 모두 중증도가 높은 편이죠. 근데 기업병원은 환자들을 조금 가려서 받는 게 있어요. 응급실에서 거부 받아서 마지막으로 오는 게 국립병원이라서 단점이라고 하면 중증환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Q. 근무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인가요?**

A. 사실 실수한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초기 때는 제가 실수해도 신규였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해해주는데 지금은 제가 실수를 하게 되면 실수를 했다는 자괴감이 많이 들어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실수를 했다면 지금은 무슨 실수를 했고, 이 실수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 지 아니까.. 실수를 했을 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다른 분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Q. 근무하시면서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A. 제가 아직 오래 근무한 게 아니고 2년차라서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Q.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만족을 하시나요?**

A. 만족은 못하고 있어요. 만족을 하기엔 너무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안 좋잖아요. 여기는 덜 하긴 해요. 보통 간호사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가끔 간호원이나 아가씨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 때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간호사는 중간에 끼어있는 처지이다 보니까 컴플레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환자분들에게도 받고 검사실, 의사선생님 이렇게 중간에서 욕을 많이 먹는 게 사실이에요.

**Q. 간호사가 아니었다면 어떤 직업을 가졌을 거 같나요?**

A. 저는 마케팅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긴 해요.

**Q. 국가고시를 치고 나서 병원에 근무하기 전, 공부해두면 좋은 것이 무엇인가요?**

A.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병원가면 다시 다 새로 공부할거고 그리고 연차가 낮으면 일주일씩 쉬는 날이 쉽게 없어요. 저도 2년 일해서 처음으로 일주일 오프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쉽게 오프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가끔 만나면 모두 하는 말이 "웨이팅 때 더 놀았어야 했어..", "더 놀러 갔어야했어.." 라고 얘기해요.



**Q. 학생들에게 면접관련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A. 면접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아산은 면접을 3명이서 들어가서 2시간씩 하거든요. 아산은 정말 면접으로 뽑는 느낌이었고, 서울대는 6, 7명이 들어가서 10분 동안 면접을 봐요. 각자 자기소개하고, 동기를 묻는 질문. 이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면접은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성적도 한 18~20등으로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보다 성적 좋았던 친구들은 1차에서 떨어졌었거든요. 저는 성적보다는 토익성적이 높았어요. 들중에 하나를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성적이 높거나 토익성적이 높거나. 그리고 어학연수경험 이런 거 좋아해요.

**Q. 진정한 간호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간호사는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간호를 한다고 배우잖아요. 정말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제가 실수를 하면 환자상태가 안 좋아지고,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하면 환자들에게 맞는 간호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욕창 같은 것들 모두 다 간호사 나름이어가지고..

**Q.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A. 아직 생각한 건 없고 먼저 경력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외국에 나가서 간호 관련 일을 하고 싶어요.

**Q. 후배들에게 조언과 격려 한마디 해주신다면? (후배들에게 꼭 하고 싶은 한마디)**

A. 간호사는 장점이 많아요. 일찍 전문성이 있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은 병원 오기 전에 많이 놀라고 하고 싶어요.



## 성공 취업 선배 인터뷰: 건강보험공단



05학번 구승현 선배님

**Q.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05학번 구승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사한 지 만 5년 7개월차 되었습니다. 6년차죠.

**Q. 간호학과에 입학했던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아.. 저는 취업난에..하하.. 취업을 위해서 전문직이 좋다고 생각했고, 이과졸업생으로서 처음에는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되겠다는 목표보다는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간호학과를 지원하였습니다.

**Q. 학교생활, 행사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무엇인가요?**

A. 저는 1학년 때 첫 대면식에서 술을 마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Q. 맡고 계신 일 하시는 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A. 작년까지는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받게 하기 위해서 독려와 안내를 하는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민원접수창고에 앉아서 민원처리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Q. 아.. 그럼 저희가 생각하는 간호와는 다른 업무인가요?**

A. 네 간호와는 전혀 다른 업무죠. 우리 공단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간호사를 뽑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관련된 업무를 한다고 보기 어려워요. 행정업무랑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Q. 처음부터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려고 했었던 건가요?**

A.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간호심사지 준비를 하려고 병원에 들어가서 규정된 임상기간을 채우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우연찮게 웨이팅기간에 건강보험공단 채용모집이 떠서 지원하게 되었는데 합격해서 그 때 이후로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생이다 보니까 사대보험이 무엇인지 건강보험이 무엇인지 정도만 알고 있었지, 보험공단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우연히 지인소개로 이 직업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Q. 다양한 직종(보건교사, 병원 간호사 등) 중 건강보험공단을 선택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솔직하게 말하면.. 간호사보다는 낫겠다 싶어가지고.. ㅎㅎ 임상보다는 다른 것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Q.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A. 직무능력시험이라고 공단에서 따로 시험이 있어서 책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책 위주로 공부하고 면접도 그냥 자기소개 준비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4개월 정도 준비했습니다.

**Q. 이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있었다면 이 힘들음을 이겨낸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A. 힘들었던 게 없어요. 붙을지 모르고 시험을 쳤는데 얼떨결에 붙었기 때문에 딱히 힘들었던 게 없고 준비라고 해봤자 준비한 것도 없어서 제가 민망하네요. 저희 때는 입사하기가 쉬웠거든요.

**Q. 일하시면서 가장 보람찼던 일은 무엇인가요?**

A. 일하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공공사업을 하다보니까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가 가장 뿌듯하고, 다른 데서 볼 때 만족도가 높아요. 지역사회 간호학 교수님께서도 강의도 요청해주시는 거 보면 직업적인 만족도가 있죠. 내적인 것보다 외적으로 볼 때의 만족도가 높아요.

**Q. 그럼 저희 학생들에게 지금의 직업을 추천하시나요?**

A. 네. 저는 무조건 졸업하시면 저희 공단에 오라고 하고 싶네요.

**Q.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A. 저희가 전국적으로 발령을 내다보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지역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서 3년 정도 자기 업무기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외롭고 좀 힘들죠. 저는 첫 근무지가 수원이었거든요.

**Q. 그 힘들음을 이겨낸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A. 원동력이랄 건 없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는 거지요.

**Q. 진정한 간호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그 답변은 힘들 거 같지만 진정한 간호란 희생인거 같아요. 자기를 버려야 할 것 같아요.

**Q. 건강보험공단을 목표로 하는 후배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2014년도부터는 전국 공공기관들은 채용하는 절차가 똑같거든요. NCS준비를 열심히 하고 학점관리를 잘해야 해요. 공무원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면 대학교 성적이 따라가기 때문에 학교성적이랑 시험 준비, 이 두 개를 열심히 준비할 필요가 있죠.

**Q.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A. 향후 계획은 여기서 더 열심히 해서 관리자가 되는 것이 목표예요. 지금은 업무 담당자이고 승진을 해서 관리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Q. 후배들에게 조언과 격려 한마디 해주신다면? (후배들에게 꼭 하고 싶은 한마디)**

A. 대학생활이 간호학과가 특히 고등학교의 연속 같지만 나가보면 이 면허증 하나가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혜택도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자부심 갖고 열심히 대학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글\_ 오선영



## Global Nursing program

### <Global Nursing program 참가 후기>

2017년 1월을 맞아 경상대학교에서 3학년 학생 7명이 다 함께 텍사스로 날아가 TWU에서 미국간호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우고 왔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이유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었다. 그 중 내가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한국에서 벗어난 넓은 시각으로 세계의 글로벌한 간호를 경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참가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는 서민정 교수님과 함께 총 3번의 모임을 가졌다. 모임을 통하여 우리는 스스로 ACS와 CHF에 대한 영어 수업자료를 만들어 스터디 그룹을 통하여 공부하고 또 교수님께서 텍사스에 가면 받게 될 수업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셨다. 또한 유미교수님과 함께 labor&delivery, CPR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하영미 교수님께서 우리의 영어실력을 걱정하셔서 직접 듣기파일과 dictation자료를 만들어 주셨다. 학교 수업에 관련된 준비과정 이외에도 미국 병원실습을 위한 예방접종과 결핵검사, 여행자보험 가입 그리고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 등 미국에 갈 준비를 하였다.

우리는 12월 31일 오전 11시에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서 미국 텍사스시간으로 12월 31일 오후 10시 쯤 텍사스 DFW 공항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우리가 생활하게 될 홈스테이 목사님을 만나 뵈게 되었다. 경상대학교 학생 7명 중 4명은 이구광 목사님 댁에서 머무르게 되었고, 3명과 지도교수님이신 유미교수님께서 한집사님 댁에서 머무르게 되었다. 미국에 도착한 날에는 너무 피곤하여 홈스테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뺏어버렸다. 그 다음날인 1월 1일 새해를 의미 있게 미국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이 날은 각 집에서 자유시간을 가지며 미국에 점차 적응하였다.

1월 2일부터 2주간 우리는 부산 경성대, 진주 국제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TWU Global Nursing Program을 참가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강의- TWU/ Dr.C.Bailey (Cardiovascular system, Angina, MI)  
 TWU/ Dr.H.Cho (Congestive Heart Failure)  
 TWU/ Dr.Woods (EKG Rhythm)  
 TWU/ Dr.M.Lee (Nursing Informatics)
2. 실습- Parkland Hospital/ Rounding (병원 OT, 각 unit 소개)  
 Methodist Hospital/ Rounding, 학생과 간호사 1대1 실습  
 UT Southwestern Medical Center/ Rounding, 학생과 간호사 1대1 실습
3. 시뮬레이션- TWU Lab/Dr.Bailey, Dr.C.Halverson (CPR Code 시뮬레이션 & 피드백)  
 TWU Lab/Dr.K.Lee (Labor&Newborn 시뮬레이션)
4. 기타- TWU 학생들과의 만남(Culture Exchange)  
 George Bush Museum 관람  
 KOWIN사람들과의 만남  
 미국의 Home care Nursing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1월2일 TWU 앞>



<1월10일 파크랜드병원>





이 프로그램의 참가해서 좋았던 점은

1. 미국의 현지 병원을 직접 체험하고 간호사와 1:1로 배치되어 한국에서의 실습보다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간호사의 업무를 보고 느끼고 듣고 배우며 실제로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2. 현재 미국 내의 간호 트렌드와 유망한 직종에 대해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3. 현지 간호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간호에 대한 열정을 배우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4. 모든 수업과 실습이 영어로 진행되어서 듣기실력과 말하기 실력을 키울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의 아쉬웠던 점은

1. 미국 병원에서 실습하게 될 파트 분배를 미리 하지 않고 당일 정해서 실제로 그 병동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지 못한 채로 실습하게 되어 아쉬웠다.
2. 출발 전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급작스럽게 전달되어서 다급하게 서류준비를 해야 했던 점
3. 연수에 드는 대략적인 금액이 제시되어있지 않았던 점
4. 지원금액이 적었던 점
5. 학교에서 주는 점심이 미국식이라고 했는데 실제 목사님과 함께 밖에서 먹었던 음식들 보다 퀄리티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나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 때문에 속이 안 좋고 아팠다.

다음번참가자들이 준비했으면 좋을 것 같은 점

1. 적어도 3달 전에 프로모션을 통해 싸고 질 좋은 직항 항공권을 예매할 것
2. 미국에 가기 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영어를 귀에 익히고 스피킹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할 것
3. 홈스테이 가족들이나 미국에서 만날 인연들을 위해 한국에서 자그마한 선물 따로 준비하기
4. 홈스테이를 하는 동안은 쇼핑을 제외하고는 돈 쓸 일이 거의 없다.
5. 날씨가 매우 변덕스럽기 때문에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겹옷과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한 우산 꼭 챙기기. 2주 동안 직접 겪어 본 바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경험하고 맑음, 흐림, 번개, 비, 눈을 다 겪었다.
6. 홈스테이를 하는 2주 동안 학교수업이 마치고 경우에 따라서 델러스 관광을 할 수 있는데 미리 계획을 짜서 홈스테이 가족 분들께 전달하여 상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델러스의 쇼핑몰, 다운타운의 방방곡곡, 맛집을 가보는 것을 추천한다.)



## 개알 정보

### ◆ BLS 자격증(=심폐소생술 자격증)



BLS이란 Basic Life Support의 준말로 미국심장협회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입니다. CPR과 AED 교육을 받고 술기를 통과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바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술기수업과 술기시험은 근처 AHA 센터에서 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2년인 것을 기억해주세요!

필기평가: 한글로 된 20문제에서 17점 이상이면 통과.

술기평가: 2가지의 술기평가를 모두 합격하면 통과.

\* 필기평가와 2가지의 술기평가를 모두 통과하여야 과정합격.

\* 필기점수 18점 이상부터 BLS Instructor 입과 가능.

## ♣ 심폐소생술 6단계 ♣





◆ KALS 자격증



KALS이란 한국전문소생술 (Korean Advanced Life Support)입니다.  
 병원 내 환경에서 발생하는 심정지 치료에 대한 전문소생술 과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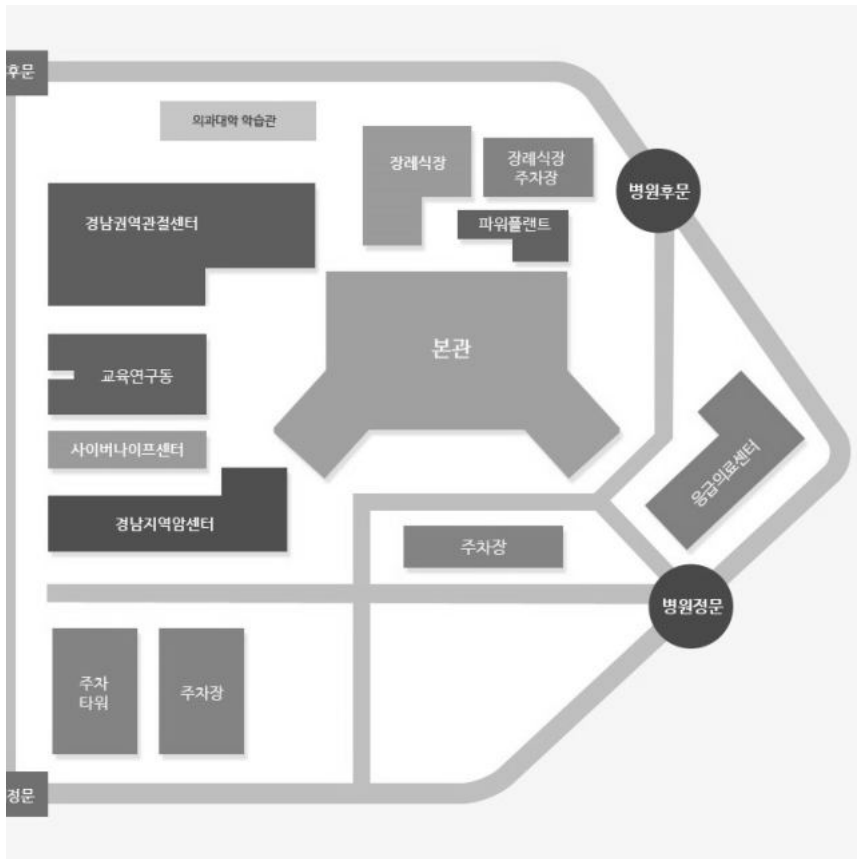
☞ KALS 자격의 종류와 기준

아래에 기술된 기간은 군복무, 질병사유, 임신 및 육아 휴직기간, 해외연수 등의 KALS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적용한다.

- (1) KALS-Provider 는 Provider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경우, 2년간 유지된다.
- (2) KALS-Instructor 는 강사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경우, 4년간 기준에 맞는 경우 유지된다.
- (3) KALS-Hospital Faculty(TS Faculty) 는 각 TS 의 Instructor 중에서 경험이 많고, TS를 성실하게 운영할 책임자로서 본인이 TS를 통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증한다. 4년간 기준에 맞는 경우 유지된다. 각 TS 에서 자체적으로 Instructor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1인의 Faculty 는 1회 과정에서 6인의 Instructor를 인증할 수 있다.
- (4) KALS-Committee Faculty 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써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KALS 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선임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교육생은 KALS 소생술 교육을 성실히 참가하고, 교육 과정 내 실습과 필기 평가에서 모두 85점 이상 (총점 50점 중 각각 42점 이상) 획득해야 한다. KALS 강사 1인이 6인까지 인증할 수 있다.
- (2) KALS 교육생 과정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 월을 기준으로 2년간 유효하고, 재교육인 경우 KALS-P renewal 코스를 이수한 경우 자격을 갱신한다.
- (3) KALS 강사인 경우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 월을 기준으로 4년간 유효하다. 4년간 4회 이상의 KALS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교육한 경우에 강사 자격을 갱신한다. KALS TS Faculty 1인이 6인까지 강사를 인증할 수 있다.



## 학생간호사, 길을 잃다.



<경상대병원 지도>

1987년 개원한 경상대학교병원은 여러 번의 건물 신축을 통해 현재 본관, 응급센터 및 심 뇌혈관질환센터, 경남지역암센터, 권역경남관절센터 등 크게 4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허가병상은 초기 419병상에서 현재는 919병상까지 증설되었다. 본관과 나머지 3개 건물이 구름다리로 이어져있는 구조로, 처음 병원에 오는 방문객들은 '백이면 백' 길을 헤매기 일쑤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있는 환자들이 검사실로 향할 땐 병동의 간호조무사 혹은 학생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다. 그러나 3학년, 심지어 이제 막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마치고 임상실습을 나온 '햇병아리' 학생간호사들은 병원 구조 및 검사실 위치에 대한 지식 수준이 일반 환자와 비교해 '도토리 키 재기'라 봐도 무관할 것이다.

"학생간호사님! 6호실에 ○○○님 모시고 심전도실로 가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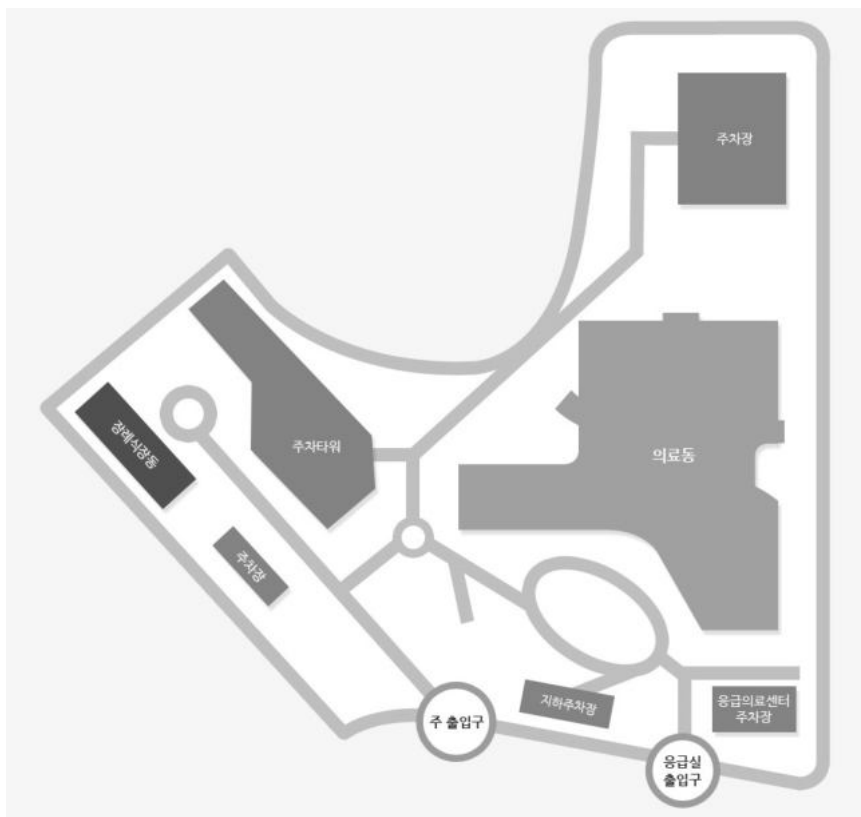
간호사 선생님의 한 마디에 햇병아리 학생간호사는 '심전도실? 심전도실? 심전도실이 어디지?!'라며 혼돈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버린다. 잔뜩 당황해버린 학생간호사의 표정에 일부 간호사 선생님은 '본관 1층 편의점에서 왼쪽으로 꺾어서 쪽 들어가면 있습니다'라고 친절히 설명해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스스로 이 난관을 헤쳐 나갈 수밖에 없다. 대개 간호사 선생님께 여쭙보거나, 병원 근로 경험이 있는 동료 학생간호사에게 물어서 길을 찾아가곤 한다. 그러나 아무리 물어보고 간들, 환자를 모시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자신 있게 갈 수는 없는 법이다. 학생간호사는 겉으로 평온한 얼굴로 걸음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



지만, 바닥과 천장에 붙은 안내표식을 스캔하느라 눈동자는 사방으로 빠르게 굴러다니고 등에는 식은땀이 '뺨질뺨질' 흐른다. 그리고 마침내 '심전도실'이라는 팻말을 확인했을 때 그제야 학생간호사는 긴장한 마음을 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그러나 이렇게 무리 없이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

"학생간호사님! 8호실에 ○○○님 모시고 관절센터 2층에 근전도실로 가주세요!"

본관에 있는 검사실은 자주 가는 곳으로 대다수 학생간호사들이 친구에게 물어 쉽게 찾아갈 수 있지만, 종종 다른 건물에 있는 검사실에 환자를 모시고 가야할 경우가 생긴다. 이런 경우 같은 조 내에서 아무도 그 검사실의 위치를 모르는 일이 생기고 만다. 햇병아리 학생간호사는 무척 당황스럽지만, 못한다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결국 용기를 내 환자를 모시고 길을 떠난다. 2층에서 무사히 구름다리를 건너 관절센터건물에 들어선 학생간호사, 중간까지는 벽에 붙은 안내표식을 따라 간신히 올 수 있었다. 학생간호사와 함께 휠체어를 밀고 복잡한 길을 따라 온 보호자는 때마침 아주 고마운 목소리로 "아휴, 길이 너무 복잡하네. 선생님이 없었으면 못 찾아갈 뻔 했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순간 거짓말처럼 안내표식이 없어지고 학생간호사는 길을 잃고 만다. 결국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선 학생간호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환자분, 죄송합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한 뒤 재빨리 달려가 청소여사님께 근전도실의 위치를 물어본다. 뒤에서는 "허허, 뭐야! 이 선생님도 길을 잘 모르네!"라는 보호자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온다. 길 잃은 학생간호사는 멧쩍게 웃으며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



<창원경상대병원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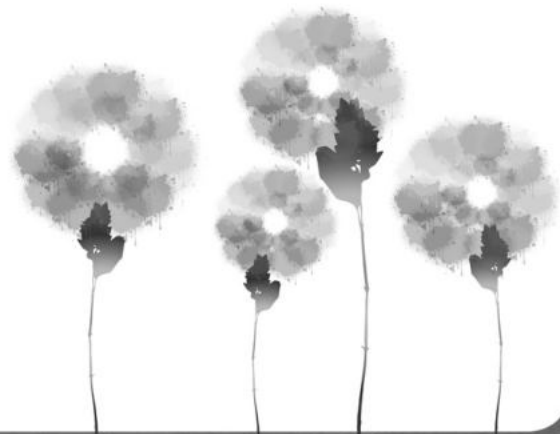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3학년 1학기 생애 첫 임상실습을 마치고 같은 해 2학기 실습을 나올 때 학생간호사들은 웬만한 검사실을 죄다 꿰고 있다고 봐도 좋다. 드디어 검사실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을 때가 온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는데, 바로 2학기 부터 2016년 2월 개원한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 1주 실습을 나가게 된 것이다. 진주 본원에 이제 막 익숙해지려는 찰나 또 다른 병원의 지리를 알아야하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창원 분원에는 이송요원이 있어 학생간호사가 환자를 모시고 검사실에 가는 일은 많지 않았다는 것 정도이다. 바로 올 수 있는 이송요원이 없거나 급하게 환자를 이송해야할 때 여지없이 학생간호사가 그 일을 도맡게 된다.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은 진주 본원처럼 엘리베이터가 한 데 모여 있지 않아, 평소에 타던 엘리베이터로 갔다가 스트레처카가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닫고 황급히 다른 곳에 위치한 엘리베이터로 향하기도 한다. 그렇게 원하는 층에 도착했을 때 학생간호사의 눈은 여지없이 사방으로 굴러다니며 검사실을 찾아내기 바쁘다. 그래도 진주 본원과 비교했을 때 창원 분원은 건물도 하나이고,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 정확한 층만 알면 엘리베이터에 내려 한 번 두리번거리는 것만으로 쉽게 검사실을 찾을 수 있다.

두 번의 실습이 끝나고 복잡한 건물과 건물 사이를 오가며 검사실을 찾아 헤매던 햇병아리 학생간호사가 이제는 자신 있는 걸음으로 당당하게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작은 변화처럼 다른 부분에서도 이제는 풋내기 겁질을 벗고 한층 더 빛나는 학생간호사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라 믿는다.



## IV. 달는 마당

- SNS 와글와글
- 편집후기









## SNS 와글와글: 2016년을 마치며....

### ♡ 4학년을 마치고...

이종민 : 크고 작은 일이 많았던 마지막 학기 그래서 더욱 재밌고 아쉬웠던... 병원가서도 화이팅!!!!

강민훈 : 공부도 학교생활도 힘내서 열심히 잘 해내길!

서석기 : 내가 이리려고 간호학과 들어왔나 자괴감 들어...(집담회 준비중)

최귀환 :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

한규철 : 취직해서도 잘 버텨보자!

박재현 : 4년 동안 너무 즐거웠어요

송자윤 : 복학하고 2년 동안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했고 감사했어요! 졸업 후에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요!

이정은 : 4년 동안 정말 고생많았습니당 보고싶을거예요ㅠㅠ♡

이지현 : 4년 동안 수고했어~~♡

하선유 : 모두의 간호사로서의 삶도 빛나길!

황지연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황희라 : 모두들 졸업축하해요♡ 우리들의 앞날에 항상 행복만이 가득하길

강예원 : 4년동안 공부하고 실습하고 시험치느라 다들 고생했어요~동창회에서 만납시다!!!  
♡♡♡

고수정 : 행복한 4년이였다♡ 정말 그리울 거 같아

김가윤 : 사년동안 고생했고 각자 위치에서 멋지게 해낼거라 생각합니당! 잘 버텨요 우리!!

김민경 : 앞으로 더 잘해보자!

김민진 : 힘들었던만큼 즐거웠었던 4년! 모두 수고했어요!

김민희 : 연팜 forever☆

김성은 : 4년 동안 수고 많았고 고마웠어! 새로운 출발도 최선을 다하자!

김성혜 : 잘했다!

김세진 : 졸업하고 나서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다들 수고했어♡

김순덕 : 2017년도 화이팅!! 나를 위해 살자!!

김아영 : 모두 지금 까지 잘 버텨왔던 것 처럼 앞으로도 잘 버티길!

김예슬 : 연팜 forever☆

김예지 : 4년 동안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어요~ TT

김은영 : 4년 동안 고생했어요~! 졸업하고도 힘들겠지만 말은 일 잘 해낼거라 믿어요^^  
모두들 가는 길이 꽃길이 되길

김지수 : 4년 동안 너무 즐거웠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당♡ 사랑해 칭그들♡



- 김지영 : 졸업 축하해^^! 앞으로도 난 잘 할수 있어 화이팅♥
- 김지희 : 2017년 한 해도 화이팅!
- 김희진 : 앞으로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 민지영 : 4년동안 함께해줘서 고마워, 무너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
- 박민경 : 연팸 forever☆
- 박수정 : 올해도 건강하고 행복하자 ^\_^
- 배소연 : 4년간 너무 수고 많았어~!! 이제 다 각자의 꿈을 이루고 꽃길만 걷자!!
- 백 솔 : 수고했어
- 서유라 : 연팸 forever☆
- 서주완 : 모두들 앞으로도 화이팅!!
- 송정민 : 드디어 졸업합니다 다들 수고했습니당~
- 오호랑 : 벌써 졸업이라니..말두 안돼.. 다들 선택한 길에서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하잡♥♥
- 윤인아 : 4년동안 너무 수고 많았고, 앞으로도 모든 일이 다 잘되길 ♡
- 윤주원 : 애들아 4년 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이제 진짜 고생시작이지만 다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화이팅하자♥
- 이도경 : 잘살아 친구들
- 이민주 : 고생많았어요~ 행복하자♡3♡ 지원아 잘살아!
- 이유민 : 4년 동안 모두 고생했어 꽃길만 걷길...
- 이은빈 : 4년 동안 고생했고 1년만 더 고생하자☆
- 이지혜 : 다들 병원에서 3년 버티자!^^
- 이효주 : 연팸 forever☆
- (132)
- 이효주 : 물음표대신 느낌표를 달자!!!
- (133)
- 임성주 : 4년동안 다들 수고했어~ 성주야 고생많았다~
- 임현명 : 4년간 고생했구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 파이팅!!♥
- 전진선 : 일년동안 행복했다~~
- 정가희 : 4년동안 고생했고 이제 더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가자 동기들 사랑한다♥
- 정선아 : 태풍이 지나가고
- 정유진 : 모두 4년동안 고생많이했고 멋진 간호사가되자!
- 천은우 : 모두들 사회생활 병원생활 파이팅 합시다. 4년동안 다들 너무 수고했어요^0^
- 천재경 : 넘나 흥가분한것♥♥
- 최효원 : 4년동안 고생했어, 광영이랑 효원이♥
- 최문희 : 그동안 고생많았구 앞으로도 힘들겠지만 열심히 하자^~^
- 최민주 : 다들 어디서나 빛나자~언제나 행복하길~~\*^-.\*
- 최보경 : 힘내자!!!



**최지원** : 안농 애두라 나는 50번 지오니야! 멀리서 온 경기도촌년이었는데 벌써 졸업이네  
**(150)** ππ우리가 졸업하고 언제 이렇게 다같이 볼수있을까ππ 그리울꺼야!! 다들 멋진 간호사, 공무원이 되어서 동창회때 밝은 얼굴로 또 만나자! 4년 동안 고마웠어! 다들 알라뽕♥3♥

**최지원** : 4년동안 모두 고생많았고, 앞으로 어느 곳에 있든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  
**(151)** 길!

**최진화** : 힘내자.

**한승주** : 4년동안 너무 수고했어♥ 졸업해서도 오래오래 보자♥

**황민지** : 현재에 충실하라

**황주희** : 지금 이 마음 그대로 RN 할수있따♥

**황희정** : 화이팅~



♡ 3학년을 마치고...

김경현 : 와글와글 유후

이동환 : 2017년 한해도 파이팅!

김태정 : 졸업하기 전에 후회 없이 모두 더 열심히 놓시다.

유수현 : 16년도 한해도 이렇게 가고 한살을 더 먹네요... 17년도 다 같이 열심히 학교 다녀요~! 간호대 파이팅

이민호 : 3학년 보내느라 다들 너무 고생했고 1년만 더 고생해요~

이준호 : 반 오십 축하해 준호야☆

고현아 : 2016년도 고생 많았고 내년에도 힘내자!!

이하영 : 이하영짱

최은경 : 이하영공듀

곽혜진 : 3년 동안 고생했어. 남은 일 년 화이팅♡

구슬기 : 남은 1년도 잘 보내자~><

김민지 : 경대간호♡ 밍써햐쥬♡

김수빈 : 병신년 수고 많이 했어요♡

김수희 : 벌써 우리가 4학년이네ㅠ.ㅠ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자~~♡

김승희 : 남은1년 무사히 제발..!

김지영 : 정신없이 시험치고 내가 간호 받아야 할 거 같을 때 실습하느라 고생 많았어! 근데...우리 일 년 더 남았어.

김지혜(01) : 같이 힘든 실습하면서 가장 힘이 됐던 우리 동기들 너무 고맙고 수고 했어~ 남은 1년도 행복하자♡

김지혜(02) : 4학년도 다들 힘내고 졸업 잘하자~

김채린 : 2016 한 해 시험 실습 다들 수고 했어요♡

김현지 : 다들 방학 잘 보내고 내년도 화이팅해요

김희진 : 2017년은 더 알차게 보내자!! 다들 행복하세요 ~.~

노동성 : 2016년 잘 견뎠고 남은 1년 잘 견디자!

노은진 : 취업만 시켜주세요...

노진경 : 3학년 수고 많았고 사학년도 화이팅 ㄹ.ㄹ.☆

모소현 : 2016안녕.....2017안녕...!♡

박나현 : 4학년도 화이팅~~!

박미희 : 남은 날들 열심히!!

박민지 : 마지막 남은 해도 힘내자!

박보희 : 4학년 때도 힘내자

박수아 : 2017년도도 행복하게, 꽃간호 화이팅♡

박수희 : 2016 수고했어. 2017도 화이팅♡

박예린 : 입학하고 서로 어색했던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가 내년에 졸업을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ㅠ.ㅠ 남은 1년도 서로 힘내서 열심히 하자!



- 박혜연 : 1,2학년 때보다 1년이 쏠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내년에도 친구들과 친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 반소현 : 2017년도도 즐겁게, 꽃간호 화이팅♡
- 백희지 : 2016년 수고했고 2017년 화이팅~~~
- 서지은 : 이제 마지막 4학년...!! 남은 시간도 잘 지내자♡
- 손은지 : 3년 동안 꽃간호들 잘 버텼다~~ㅎㅎ 남은 일 년 알차게 보내자♡
- 송경화 : 앞으로 1년밖에 안 남았어! 다들 화이팅!!
- 신은주 : 벌써 4학년이네용TT 남은 1년도 다들 화이팅..!
- 신현지 : 2017년도 화이팅!
- 신혜진 : 3학년 모두 수고 많았고 4학년 마지막까지 힘내자 화이팅!!♡
- 안주은 : 수고했어. 그동안.
- 양선령 : 모두 졸업 잘해서 행복하자><
- 오승지 : 올해 사망년 힘들었다 π—π 내년도 다 같이 잘 이겨내자! 싸라해 친구들아♡
- 윤미현 : 벌써 4학년이네TT 남은 일 년 2017년도 힘내서 모두 원하는 대로 이루자! 화이팅 :)
- 이가인 : 이제 우린 최고 늙은이
- 이서경 : 이제 4학년이라니...또록 남은 1년도 화이팅!!!!♡
- 이아민 : 메리크리스마스 해피뉴이어~항
- 이주영 : 2017년도 화이팅!!!
- 이혜민 : 2017 화이팅!
- 이혜주 : 벌써 4학년이라니 믿기지 않지만 남은1년도 최선을 다하자! 화이팅♡
- 임지연 : 졸업까지 화이팅
- 장선해 :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벌써 4학년이네...3학년 동안 다들 너무 고생 많이 했고 수고했어!
- 전운진 : 4학년도 열심히 하자, 친구들~~!! 꽃간호 화이팅♡
- 정소정 : 4학년도 화이팅! 남은 1년 힘내자♡
- 정수경 : 2016년도 수고했어. 내년에도 으쌰 하자!
- 정은비 : 22살 안녕ππ 23살 흥πππππ
- 정희경 : 3학년 넘나 힘든 것...그래도 마치니까 홀가분하니 좋네요. 내년엔 제일 윗 학년이라니;; 세월;;
- 천혜빈 : 잘 가라 병신년~
- 최예지 : 2017년에도 행복하게, 꽃간호 사랑해♡
- 최유리 : 4학년 으악 화이팅! ~~
- 최은영 : 2017년 다들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곳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 하유진 : 내년 4학년 무사히 보내길... 화이팅!!
- 황은주 : 2017년도 화이팅!\ ◎▽◎ /
- 이다해 : 내년에도 화이팅♡
- 이상아 : 2017년에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 박희영 : 4학년 무사히 잘 보내자ㅎㅎ



♡ 2학년을 마치고...

- 이지용 : 반오십ㅌㅌ  
 이휘구 : 과탐는 아무나하나  
 황윤태 :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 : 3학년 때 열심히 하자  
 박재형 : 다들 수고했고 내년에도 열심히 하자~  
 배준화 :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벌써 삼학년이야 ㅍㅍㅍㅍㅍㅍ  
 정종길 : 일년 동안 고생했다 삼학년 더 고생하자 ㅎㅎ  
 김유진 : Seize the day!  
 김가현 : 3학년 되기 무섭다ㅍㅍ 다들 화이팅...!  
 김나경 : 역시 발암동!!  
 김나현 : 2학년 너무 힘들었다..ㅌㅌ  
 김도연 : 다사다난했던 2학년아 다신보지말자 실습 화이팅  
 김수아 : 칠암에서 일년 동안 고생많았어 ㅎㅎ  
 김수현 : 우리가 벌써 사망년이라니ㅍㅍ  
 김승지 : 3학년도 잘 보내자 화이팅!!  
 김아현 : 우리 인생 화이팅..  
 김예지 : 한해 수고했수  
 김은주 : 힘든 2학년 다들 수고했어~ :)  
 김정민 : 적절한 칠암생활, 과제폭탄 시험들 정말 힘들었지만 그마저도 다 이겨내고 3학년이  
 다가왔으니까 내년에도 파이팅!!  
 김진희 : 방학이 제일 좋아♡  
 김현진 : 3학년 때도 잘 지내자  
 김혜준 : 애드라 올해도 수고했5!! 새해복마니 받아□  
 김효진 : 3학년 때도 잘 지내요!  
 김희선 : 힘들고 많이 아팠던 1년..앞으론 조용히 지나가기를!!!  
 김희지 : 남강 산책 다녀올게  
 나연수 : 만나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노정인 : 한 학기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음 다음 학기도 잘해봅시당><  
 류은영 : 우리가 벌써3학년이라니..힘내자~!♡  
 박나현 : 모두들 수고했어요~ 수고했어 나현아!  
 박선영 : 한해 수고했다! 내년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ㅎㅎ  
 박지수 : 2학년, 1년이고 이제 시작이겠지만 잘 버틴 것만으로도 뿌듯하고 1년이 너무 빨리  
 지난 거 같아서 아쉽고 벌써 22살이 될 거라는게 믿기지 않지만 동기들아 남은 2  
 년도 잘 부탁해..!♥  
 박채정 : 내년부터 라포 형성 잘하자  
 배지애 : 칠암에서 일년 동안 고생많았어!!!  
 백인정 : 올해 다들 고생많았구 내년에도 다들 화이팅합시다~!~! ₩('-')/



- 서아림 : 실습 화이팅 ㅠ
- 손혜진 : 남은 2년도 화이팅
- 신보미 : 2학년 1년동안 다들 너무 수고 많았어 남은 2년 더 힘내보자~! 신입생이 또 들어 온다~~!ㅠ
- 신수연 : 다사다난했던 2학년이 끝나다니 시원섭섭,,! 2017년도 내 사람들과 함께 할 수있는 해이기를♥
- 안지혜 : 2017년 달라지고 싶다!
- 오선영 : 2학년은 힘든 일이 많았다ㅠ 이제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 유유진 : 지옥 같은 2학년 지나갔으니 행복한 삼학년 오길!!
- 유지현 : 시키니까 쓴다. 나지 않는다 생각.
- 윤신영 : 2학년 너무 힘들어,,ㅎ 내년엔 더 화이팅
- 이선민 : 2학년 드디어 끝이났다. 두 번 다시 돌아가지 않을거야!
- 이소현 : 2016년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2017년도 힘냅시다!
- 이연경 : 애들아 수고했어~~
- 이우정 : 친구들 언니들 고마워 ♥♥ 이학년 별 거 없네
- 이정은 : 까야아아아ㅏ양아아악 이제 22살이야아아 ㅠㅠㅠㅠㅠ
- 이혜원 : 칠암감옥 석방까지 이제 2년 남아따 !
- 장규정 : 일 년 동안 공부하느라 수고했고 내년에도 화이팅 하장!!
- 장진주 : 2016 마음드리 !!!!!!! (\*~\*) ♡
- 전승희 : 오선영 화이팅
- 정보민 : 3학년 화이팅!
- 정예지 : 2학년 힘들었지만 재밌었어♥
- 정은정 : 에휴.....이번 학년도 망했지만 망해도 괜찮아 >. <
- 정은지 : 한 해 동안 수고했어요~
- 오지연 : 2학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고 3학년 때도 열심히 하자♡
- 정혜영 : 으왕ㅇㅇ아아아 3학년이다~2학년으로는 절대 안돌아갈래ㅠ
- 조수영 : 1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거 같다ㅠㅠ아직 2학년일거 같은데 3학년이라니 엉엉
- 조안나 : 2학년 때처럼 다가오는 3학년도 아무 탈 없길..!
- 차민지 : 신성팰리스 안녕 알바쟁이 녀이 내 룸메 농이 약점캡쳐 연수 3학년 돼서도 열심히 놀고 열심히 공부하자
- 차민지 : 3학년도 잘 버티자
- 최민경 : 2학년 힘들지만 끝났다~
- 최지영 : 올 한해 다들 고생 많았구 앞으로 더 고생하자...! 화이팅( ㄹ ㄹ )
- 최하영 : 방학 안 끝났으면 좋겠다..ㅋㅋ
- 하지원 : 드디어 끝난다 2016 다사다난 병신년(丙申年)~~^0^)/
- 하지형 : 1년 또 너무 바쁘게 보냈지만 즐거웠어요!!
- 한수지 : 이번해도 고생 많았어~~내년도 고생할거지만 그래도 좀만 더 힘냅시다~ㅎㅎ
- 홍유진 : 재시만은 피하자아아아
- 황희지 : 3학년 실습 화이팅~!



**이흥근** : 모두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김희성** : 드.디.어 2016년 마지막 날이네요ㅋㅋㅋ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했어요~~

**류나래** :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당~~ 다들 웃는 얼굴로 3학년 때 다시 뵈요~~





### ♡ 1학년을 마치고...

- 강영진 : 다들 수고 많았고 남은 3년도 잘 지내보자!
- 강인범 : 1년 동안 즐거웠고 칠암 가서 보자~!!
- 강혜빈 : 한 해 동안 수고했고 칠암에서도 잘 지내자^^
- 강혜준 : 3년 뒤에 봐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어요. 다들!!
- 고소영 : 지난 1년 동안 너무 수고했어! 1년 동안 재밌는 추억 만들었던 것처럼 남은 3년 동안도 잘 지내보자 ~~~~
- 권이현 : 너무너무 좋은 동기들이랑 같이 지낼 수 있어서 진짜 좋았어. 다들 고마웠어.^.^
- 권지연 : 모두 1년 동안 고생했어! 칠암 가서도 파이팅하자)
- 김경은 : 1년 동안 다들 고생했고 칠암동 가서도 즐겁게 지내자~~
- 김나은 : 1년 동안 수고했고 남은 3년도 잘 지내자~~
- 김다혜 : 다들 1년 동안 수고했고 내년 한 해도 파이팅!!
- 김미림 : 다들 1년 동안 고생했어. 앞으로도 파이팅!
- 김민수 : Call me maybe
- 김민재 : 포기하고 싶어질 땐 왜 시작했는지를 기억하자
- 김민정 : 내년에도 항상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당~~~ㅎㅎㅎ 2017 화이팅~~~
- 김민지 : 올해 1년 너무 즐거웠어, 애들아! 수고했고 방학 잘 보내고 칠암가서 보자~~
- 김병학 : 1년 동안 수고 많았고 다들 잘 지내~
- 김보연 : 1년 동안 같이 활동도 하면서 즐겁게 보내서 다들 너무너무 고마웠어~!! 3년 동안 에도 즐겁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
- 김성원 : 애들아 1년 동안 정말로 수고 많았어!! 미지, 병우 두 과대도 정말 많이 수고했구.. 페스티벌 때 같이 고생했던 우리 의연!! 그리고 친구들ㅎㅎ 진짜 힘들었지만 그만큼 사이도 돈독해지고 정말정말정말 재미있었던 거 같아ㅎㅎ 난 수강 신청 실패한 몇 과목 빼고는 만족스러운 한 학기를 보낸 것 같아!! 좋은 친구도 많이 사귀고 좋은 선배들도 알게 되고ㅋㅋ 공부는....공부는.....um.... 췌든ㅋㅋ 너희들도 즐겁고 만족스러웠던 1년을 보냈길 바라!! 애들아 정말 수고했고 앞으로 남은 3년도 파이팅!!
- 김예원 : 칠암가서 더 사이 좋게 잘 지내장!! 공부도 열심히 하고ㅎㅎ
- 김원빈 : 칭규들~~1년 동안 수고했고 재밌었엉 :) 칠암가서도 열심히 합시당♥
- 김은빈 : 다들 수고했고 방학 잘 보내고 내년에도 파이팅ㅎ
- 김이담 : 1년 동안 수고했고 방학 잘 보내고 앞으로도 잘지내자 ㅎㅎ
- 김정옥 : 1년 동안 수고 많았고 내년에 칠암에서도 재밌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방학 잘 보내고 내년에 봐용
- 김주희 : 1년 동안 모두 수고했어~칠암가서도 친하게 지내자~
- 김지민 : 2016년 모두 수고 많이했어~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 친구들^^
- 김지수 : 금방 지나가버린 1년이었지만 즐거웠고 다들 고생했어ㅎㅎ칠암가서도 잘지내자~~
- 김하나 : 1학년 다들 수고했어~~ 2학년도 잘 지내자~~~
- 김하림 : 1년 동안 수고 많이했고 칠암가서 열심히 하고 잘지내장 ㅎㅎ
- 남연우 : 다들 1년 동안 고생했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래~!
- 남은경 : 2016년 한 해 동안 다들 수고 많았고 앞으로 남은 3년도 같이 잘지내보자 ~



- 라범수 : 칠암가서도 파이팅!
- 류혜지 : 대학교 1학년의 좋은 추억들을 좋은 동기들과 만들 수 있어서 행복했어~내년에도 좋은 추억 만들자!
- 박경희 : 1년 동안 수고했어! 2학년도 파이팅!
- 박병우 : 1년 동안 모두 고생도 많이 했고 즐거운 일도 많았어ㅎㅎㅎ 17년에는 더 많이 즐거운 일들 만들어가자~!!
- 박세현 : 안녕 20살 흑흑
- 박재휘 : 지난해에 다들 고생 많이 했고 앞으로도 계속 힘내고 잘 지내!
- 박주원 : 수고했어 애들아~~ 칠암에서도 친하게 지내자 ~
- 박현지 : 2016년 수고 많았고 다가오는 2017년에 모두들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램ㅎㅎ!
- 배안음 : 1년 동안 수고 많았구 2학년 칠암가서두 잘 지내자 !
- 백소정 : 1학년 재밌었어! 우리 모두 칠암가기 전에 재밌게 놀고오자^^칠암생활 파이팅^^
- 서민경 : 그동안 즐거웠고 남은 시간 후회하지 않게 잘 보내자!!
- 석미지 : 한 해 동안 다들 수고했고, 고마웠고, 재밌었어!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당~16학번 파이팅♥
- 손명은 : 다들 수고했고 내년에도 파이팅
- 송영은 : 2017년 의미있게 보냅시다!
- 송은정 : 1년 동안 다들 고생 많았어! 칠암가서 앞으로도 잘 지내고 즐겁게 학교생활하자~
- 송주연 : 1년 동안 수고 많았고 같이! 힘내서 가보장
- 신연주 :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았고 재밌었어:) 앞으로 남은 3년도 잘 지내보장
- 심유진 : 1년 동안 수고했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 양혜민 : 1년 동안 수고했고 남은 학교생활 같이 즐겁게 하자 ㅎㅎ
- 오수현 : 1년 동안 수고 했어~ 내년에도 파이팅!!
- 유소민 : 1년 동안 수고했고 내년에도 잘 지내자~
- 이미영 : 가좌동에서의 1년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쉽지만 다들 수고했고 칠암 가서도 즐겁게 지내자~~
- 이소현 : 1년 동안 수고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잘 지내자~
- 이유빈 : 1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지만 정말 즐거웠어!! 방학 모두들 잘 보내~~
- 이은규 : 다들 수고 많이 했고 3년 뒤에 보자~
- 이장현 : 1년 동안 같이 공부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앞으로 가는 길에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보람찬 방학 보내고 그럼 2년 뒤에 보자!!
- 이채원 : 1년 동안 수고했고 칠암가서 다들 공부 열심히 하길~ㅎㅎ
- 이현지 : 가좌에서 많이 놀았으니까 칠암가서는 열공하자 ㅎㅎ
- 장송희 : 1학년 재밌게 보냈으니깐 2학년 때는 열심히 보내자 !!ㅍㅍ칠암ㅋㅋ
- 장은정 : 2학년 때도 즐겁자~
- 전병규 : 1년 동안 수고했고 다들 방학 잘 보내
- 전송원 : 1년 동안 가좌에서 즐거웠어^^ 칠암가서도 잘지내자~~ 수고했엉~~!!!
- 전하영 : 1학년 수고했어~~ 방학잘보내고 칠암가서도 파이팅하자~!!방학잘보내~~
- 정수인 : 1년 동안 너무 수고했고 즐거웠어. 칠암에서 남은 3년도 힘내자ㅎㅎ
- 정연우 : 1년 동안 수고했고 앞으로도 잘 지내장~



**정진영** : 1년간 같이 가좌생활 잘했어^-^ 3년간 칠암에서도 잘지내자 ㅎㅎ

**정혜리** : 모두 한 해 잘보냈겠지요오오! 내년도 후내년도 졸업할 때까지 같이 좋은 시간 보내자아아아

**제현아** : 다들 1년 동안 고생했어~ 방학 잘 보내고 칠암가서 보자:)

**최연성** : 1학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았고 마무리 잘해~~~ 남은 3년도 잘 지내보자!!! ㅎㅎ

**황채영** : 1년 동안 모두 수고했고 내년엔 칠암가니까 더 힘내자 ㅎㅎ 화이팅~!



## 편집후기



### ♡4학년

**윤인아** 어느덧 교지편집을 하는 것도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된 것 같아 뿌듯하면서도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번 교지는 모두 다 함께 노력한 덕분에 좋은 교지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졸업하더라도 교지편집부에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지편집부원들 방학인데 교지를 만드느라 힘들었을 텐데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교지 부탁드립니다 교지를 만드시느라 신경 많이 써주신 전미양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가윤** 벌써 교지가 세 번째라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시너지를 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어찌해야 할지 몰랐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자신이 맡은 바를 잘 해내는 후배들을 보니 정말 뿌듯합니다. 간호학과와 일정도 빠듯한데 그 속에서 이렇게 1년 동안 우리의 추억이 담겨있는 교지를 제작하려고 노력 많이 한 시너지 팀을 생각하며, 많은 학우들이 읽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졸업을 하면서 마지막 교지가 된다는 사실에 아쉽지만, 시너지와 함께했던 2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2017년의 교지도 알차고 예쁘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가희** 시너지를 편찬하면서 1년 동안 우리 학과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또한 이 교지를 한 부 만들기 위하여 고생한 후배들과 친구들, 교수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3학년

- 김지영** 처음 교지를 만들다보니 많이 부족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선배님들, 동기들 그리고 후배들과 함께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교지를 만들며 1년 동안 우리들이 경험한 일들을 다시 떠올려 볼 수 있어 좋은 일이었습니다. 학생들 모두 시너지를 통해 추억을 떠올리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지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노은진** 교지 편집부에 들어가서 처음 글을 써보았습니다. 3학년 학교생활과 교수님 소개를 쓰면서 1년의 시간을 되돌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업과 실습 사이에 많은 학과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나서 행복했습니다. 경상대학교 간호학과 교지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합니다.
- 이가인** 처음 임상실습을 나가게 되는 3학년, 그 1년 동안 강의와 실습을 번갈아가며 나 자신을 되돌아볼 여유도 없이 정말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교지에 실을 글을 쓰며 1년 동안의 나를 되돌아보고 추억을 되새길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지를 읽는 학우들에게도 자신의 과거, 혹은 미래를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하유진** 처음 교지를 만들려고 했을 때의 떨림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처음으로 교지를 만들다보니 글을 쓰고 고치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재밌었습니다. 교지 활동을 통해 1년 동안 간호학과에 있었던 여러 일을 되새겼다는 점에서 많은 보람을 느끼며 교지가 이렇게 잘 마무리 되어 기쁩니다.

### ♣2학년

- 오선영** 작년에 이어서 교지편집부가 동아리로 되어 11명이 모여 교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전 학년에게 나누어질 텐데, 모든 학년들에게 이 시너지가 가볍게 읽으면서 옛 추억을 떠올리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교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은정** 이번 해로 교지편집부를 2년 째 하면서 교지편집을 일학년 때 이어서 한 번 더 해보게 되었다. 두 번째 하는 거라 그래도 쉽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신경을 써서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어려웠던 점도 있었다. 그래도 나온 교지를 보면 보람 있고, 결과물을 바라보면서 뿌듯할 것 같다. 교지편집에 참여한 모든 학년 선,후배 수고하셨고, 2017년도 모두 보람 있고, 행복한 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학년

**박재휘** 한 해 동안 겪었던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그동안 있었던 추억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다. 또한 못해본 것도 생각나서 아쉬운 점도 들게 했다. 신문 편집을 하면서 동기들의 소감을 받을 때에는 나만 한 해에 대한 소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들 비슷하게 느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석미지** 한 해 동안의 크고 작은 행사들을 되돌아볼 수 있었고, 잊고 있었던 그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처음 교지를 편집하며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책임지고 맡았을 때 한 권의 완성본이 나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내용의 교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유빈** 1년을 마무리하며 글을 쓰고 있는 것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잊어버렸을 수도 있었을 소중한 추억들을 이렇게 직접 글을 써봄으로써 다시 기억해 볼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친구들과 함께했던 즐거운 기억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처음 글을 쓰게 되었을 때는 학과의 많은 사람들이 내 글을 읽게 된다는 생각에 부담감이 적지 않았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걱정만큼 글을 쓰는 일이 그렇게 크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글을 쓰면서 새록새록 떠오르는 추억에 잠겨 즐거울 때도 있었고, 한 해 동안 좋은 친구들을 만나 많은 경험을 하고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 시너지

퍼낸이 간호대학 학생회 · 편집부 | 퍼낸곳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학생회 | 인쇄 서린디자인  
주 소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816번길 15 | 전 화 055)772-8221